

# 지역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

2022-09

수시연구

Promoting the Cultural Facilities for  
the Communities Development

김 면  
노수경  
정수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수시연구 2022-09

# 지역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

Promoting the Cultural Facilities for the Communities Development

김면·노수경·정수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연구책임

---

김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 공동연구

---

노수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수희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지역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개요





# 1. 서론

## 가. 연구 배경

- 문화기반시설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기에, 기관운영 내실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 정책방향이 필요함
- 지역에서 문화기반시설의 사회적 기능 수행이 요구되는 바, 활동기능 확대에 대한 대안 모색을 위해 기관 실태와 운영현황 파악이 요구됨
-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문화기반시설의 장기휴관이 지속되어 기관들의 활동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과 문화시설을 통한 지역성장 전략 모색이 필요함
- 지역사회에서 기관 간 협력 및 민간의 소통을 촉진하고 추후 실질적인 협업사업 발굴 및 활동을 추진하여 시너지 창출 가능성을 도출할 필요가 있는 바, 문화기반 시설의 체계화 및 협력증진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마련 시급

## 나. 연구 목적

- 지역문화기반시설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현황과 운영 상황을 파악하고 기반시설의 공급 환경과 문화자원 및 향유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추진체계를 분석함
- 관계자 및 전문가 대상 FGI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운영, 인력관리 등 문제점 및 시설 개선방향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문화기반시설 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활성화 추진방향을 도출함
- 지역사회의 문화인프라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 내 공간자원, 콘텐츠자원, 인적자원, 제도적 측면에서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 다. 연구 범위

- 문화기반시설 현황은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량의 연간이용자 수 및 기초통계자료에 대한 데이터가 통합 구축하기 시작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본 연구의 주요 범위로 설정함
- 문화체육관광부 및 등록·국립·공립 문화기반시설에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화예술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지역 내 기본정보 및 유형별 실태를 파악하고 사업운영 프로그램 조사 및 관리진단을 수행
- 기관운영 담당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사업운영 및 교류협력, 만족도, 개선 요구사항 등 도출
- 문화기반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개선방안 모색하며, 지역문화정책 생태계 측면에서의 플랫폼 기능을 모색하며,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사업운영 방안 및 기관 간 공동역량을 강화하는 활성화 방안 제시

## 라. 연구 방법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기반시설 관련 정부문서, 연구기관 정책보고서, 포럼 자료집, 세미나 자료집, 지자체차원 사례 자료 및 웹사이트를 통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관련 통계정보를 수집 및 분석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에서 활동하는 기관별 관련 담당자 및 실무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인력관리방안 등 향후 개선 및 발전과제에 대한 의견 수집
-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문화기반시설 관련 전문가 17명(대학교수, 지역연구기관 연구원 및 현장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실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함
- 국내외 문화기반시설들 운영 사례분석을 통하여 성공요인을 판별하고 강약점 파악하여, 운영 상황에 접목이 가능한 의미있는 사례를 취사선택하고, 제도적, 정책적 활용도를 고려한 시사점을 도출함

## 2. 문화기반시설 현황 분석

### 가. 문화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현황

-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등재되어있는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화예술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을 주요범위로 지역별 운영현황을 분석함
  - 일반 주민이 이용하기 어려운 사립, 대학, 교육청이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함
  - 시설면적, 프로그램, 운영예산 등의 데이터가 없는 생활문화센터는 분석에서 제외함

〈표 1〉 분석대상 문화기반시설

도서관(918)	박물관(437)	미술관(80)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 4개 기관</li> <li>• 지자체공공도서관 914개 기관</li> </ul>	국공립 437개 기관	국공립 80개 기관	262기관	230기관	101기관
(제외) 사립 23기관, 교육청 235기관	(제외) 사립 358기관, 대학 105기관	(제외)사립 179기관, 대학 15기관			

-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을 참고하여 9개 분석항목을 도출함
  - 문화기반, 문화콘텐츠, 문화지원·운영, 문화향유·소비 4개 분류에서 문화시설의 개수, 면적, 프로그램수, 운영일수, 직원수, 운영예산, 이용자 수 등

〈표 2〉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의 틀

분석관점	분석항목			
	문화기반	문화콘텐츠	문화지원·운영	문화향유·소비
문화향유 기회의 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시설의 개수</li> <li>- 문화시설의 면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프로그램수</li> <li>- 운영일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시설 직원수</li> <li>- 운영예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 수</li> <li>- 시설당 이용자수</li> <li>- 프로그램당 이용자수</li> </ul>

## 나. 중앙정부의 정책현황

- 문화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문화향유에 대한 지역 간 격차에 대한 분석을 위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문화기반시설 확충 지원 정책, 운영 지원 사업 및 전문 인력 지원 정책을 분석하였음

## 3.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의견 조사

### 가. 문화기반시설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자 관계자 설문조사 실시

〈표 3〉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의견 조사 개요

항목	조사 내용
목적	지역 문화기반시설 실태 현황 및 향후 발전방향
대상	전국 문화기반시설 근무자
기간	2022년 9월 23일~9월 30일
내용	• 문화기반시설 관련 현황조사 (6문항) • 문화기반시설 관련 인식조사 (5문항) • 향후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방향 (3문항)
방법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온라인 조사
응답자	101명

-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협력체계를 갖춘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박물관협회, 지역문화진흥원의 협조를 받아 전 지역의 기반시설 담당자에게 설문 협조를 공지하였고 무작위 선착순 101명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 구체적으로 우선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의 조성 현황과 활용도 파악, 그리고 문화기반시설 인식, 끝으로 향후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나. 문화기반시설 관련 전문가의 정책 의견 조사

- 전문가 의견조사는 문화기반시설에 관한 지역의 정책 추진 현황과 중앙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목적으로 실시됨
- 지역과 지역문화기반시설의 운영 현황, 추진 정책 및 관련 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17인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함
- 기반시설의 운영 측면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차원에서 격차해소 방향과 효과적인 활용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 청취

〈표 4〉 담당자 의견조사 대상자 및 내용

조사대상자 정보	인터뷰 내용
지역문화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기반시설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 정책 현황</li> <li>• 지역 내 프로그램 연계 사례 및 정부 정책 연계 방안</li> </ul>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박물관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기반시설 대상 정부공모 사업 현황</li> <li>• 공공-사립 문화기반시설 간 운영 차이 및 정책 방안</li> </ul>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前 국립00박물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문화기반시설 간 운영 편차 원인 및 정책 방안</li> <li>• 문화기반시설 콘텐츠 다양화를 위한 방안</li> <li>• 문화기반시설 전문인력 활용 방안</li> </ul>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민간 콘텐츠제작사 대표	
문화정보학과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문화기반시설 운영 현황 및 제도 개선사항</li> <li>•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 간 협력 방안</li> </ul>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국립생태원 전시교육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문화기반시설 정책 소관 부서 간 업무 협력 현황</li> <li>• 문화기반시설 간 협력방안</li> </ul>
광주시립미술관	
지역문화연구소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주민의 문화기반시설 수요 현황</li> <li>• 지자체 문화기반시설 정책 현황</li> <li>•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 간 협력 방안</li> </ul>
부산연구원	
대전세종 연구원	
광역문화재단 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문화협력시스템 구축과 광역지자체 역할 제고 방안</li> <li>• 지역문화기반시설 연계협력사업 성과 독려 방안 검토</li> <li>• 기반시설 고유 업무 영역 자문</li> </ul>
인문학과 교수	
민간 컨설팅기업 대표	

-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정도를 파악하고 문화기반시설의 사회적 역량(네트워크 유형, 연계협력 정도 등) 강화에 대한 의견을 모색하며, 행정구역, 인구, 면적 등 단일 기준이 아닌, 지역특성 및 기존 문화인프라의 배치 등을 고려한 차별적 공급 전략 논의

## 4.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방안

-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도적 기반 조성」, 「기반 시설 관리의 고도화 방안」, 「콘텐츠 운영의 효율성 제고」, 「인적 역량 제고 및 활동 지원」, 「지역시설 간 교류 및 민간의 협력 강화」를 제시하였고, 실행을 위한 세부방안들을 구성하였음
- 「제도적 기반 조성 및 역량강화」에서는 문화기반시설 관련 통합적 법적 기반 마련에 대한 검토를 제안했고, 광역자치단체의 역할확대와 운영현황의 모니터링 도입을 위한 대책방안들을 제시했음
- 「기반시설 관리의 고도화 방안」에서는 우선 현 문화시설 공간의 기능전환 및 복합화 방안과 함께 리모델링 사업 및 SOC 등록제 활용을 통한 운영안정화 지원 등 제고방안을 모색해보았음
- 「콘텐츠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서는 문화프로그램의 운영실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공급방안, 지역 내 교류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제시하며 콘텐츠 측면의 방안을 다루었음
- 「인적 역량 제고 및 활동지원」에서는 문화시설의 운영을 전담하는 전문인력 관련 구체적인 제고방안을 제시하였음. 현장중심 인력양성 기반 강화, 전문인력 교육시스템 개선 및 인력 네트워크 구축을 내용으로 구성하였음
- 「지역시설 간 교류 및 민간의 협력 강화」에서는 지역 간, 타 관종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지역 내 민간 협력체계를 구상하는 구체적인 제고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 연구는 지역 문화기반시설 관련하여 양적 확충위주의 공급방안만이 아닌, 다각적인 운영효율화 방안과 효과적인 정책지원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 목차

<b>제1장 서론</b> .....	<b>1</b>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4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6
1. 연구 범위	6
2. 연구 방법	7
<b>제2장 문화기반시설 관련 현황 분석</b> .....	<b>11</b>
제1절 지역 문화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 현황	13
1. 분석의 틀	13
2. 시설별 운영현황 분석	15
3. 인구규모 대비 시설 현황	19
제2절 중앙정부 정책 현황	22
1. 문화기반시설 확충 지원 정책	22
2. 운영 지원 사업	25
3. 전문인력 지원 정책	28
제3절 시사점	30
1. 기반시설 건립 및 운영 현황	30
2. 중앙정부 정책 현황	32
3. 지역 수요 분석 한계	35
<b>제3장 문화기반시설 관련 인식 조사</b> .....	<b>37</b>
제1절 관계자 및 담당자 설문조사	39
1. 설문조사 개요	39

2. 설문조사 결과	41
제2절 전문가 의견조사	55
1. 의견조사 개요	55
2. 의견조사 결과	56
제3절 수요분석과 시사점	59
1. 지역 및 시설별 현황체계	59
2. 운영 기반 및 관련 제도	62
3. 현장 기반 정책추진 방안 현행화	64
<b>제4장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방안</b>	<b>67</b>
제1절 기본방향	69
제2절 정책방향 설정	70
1. 지역 간 격차해소	70
2. 주민 참여도 증진	71
3. 지속가능성 확보	72
제3절 세부추진 전략과제	73
1. 제도적 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	74
2. 기반시설 관리의 고도화 방안	80
3. 콘텐츠 운영의 효율성 제고	84
4. 인력 역량 제고 및 활동 지원	87
5. 지역시설 간 교류 및 민간의 협력 강화	92
<b>제5장 결론 및 제언</b>	<b>99</b>
제1절 결    론	101
제2절 정책적 제언	103

참고문헌 / 105

ABSTRACT / 107

부록 의견조사지 양식 / 109



---

## 표 목차

〈표 1-1〉 문화기반시설 확충 추이(2017~2021)	3
〈표 2-1〉 분석대상 문화기반시설	13
〈표 2-2〉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의 틀	14
〈표 2-3〉 시설별 확인가능한 분석항목	14
〈표 2-4〉 시설별 문화기반 항목 분석 결과	15
〈표 2-5〉 시설별 문화콘텐츠 항목 분석 결과	16
〈표 2-6〉 시설별 문화자원·운영 항목 분석 결과	17
〈표 2-7〉 시설별 문화향유·소비 항목 분석 결과	18
〈표 2-8〉 분석 지역	19
〈표 2-9〉 문화기반시설 최종 합산 점수	20
〈표 3-1〉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의견 조사 개요	40
〈표 3-2〉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의견 조사 응답자 특성	40
〈표 3-3〉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의견 조사결과(1순위)	41
〈표 3-4〉 문화기반시설 이용 범위에 대한 의견 조사결과	42
〈표 3-5〉 문화기반시설 이용 범위에 대한 의견 조사결과(지역별)	42
〈표 3-6〉 문화기반시설까지 소요시간에 대한 의견 조사결과	43
〈표 3-7〉 문화기반시설까지 소요시간에 대한 의견 조사결과(문화기반시설 유형별)	43
〈표 3-8〉 참여 문화향유 형태에 대한 의견 조사결과	44
〈표 3-9〉 참여 문화향유 형태에 대한 의견 조사결과(문화기반시설 유형별)	44
〈표 3-10〉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주민 만족도 의견 조사결과	44
〈표 3-11〉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주민 만족도 의견 조사결과	44
〈표 3-12〉 지역 문화기반시설 현황에 대한 주민 만족도 의견 조사결과	45
〈표 3-13〉 문화기반시설 프로그램 참여 선택기준에 대한 의견 조사결과(1순위)	46
〈표 3-14〉 문화기반시설 이용 어려움에 대한 의견 조사결과	47
〈표 3-15〉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화기반시설 간 지역 차이에 대한 의견 조사결과	48
〈표 3-16〉 지역 내 다른 문화기관 단체들과의 네트워크 교류에 대한 의견 조사결과	48
〈표 3-17〉 인접 다른 시군구의 문화기반시설 연계활용방안에 대한 의견 조사결과	48

〈표 3-18〉	인접 다른 시군구의 문화기반시설 연계활용방안에 대한 의견 조사결과(문화기반시설 유형별)	49
〈표 3-19〉	향후 문화기반시설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 중요도에 대한 의견 조사결과	51
〈표 3-20〉	향후 문화기반시설 간 협력 증진 관련 중요도에 대한 의견 조사결과	52
〈표 3-21〉	문화기반시설 관계자 설문 의견 종합	53
〈표 3-22〉	담당자 의견조사 진행일정 및 내용	55
〈표 3-23〉	문예회관의 연도별 개관 현황	60
〈표 3-24〉	2000년 이전에 건립된 97개소 문예회관의 지역별 현황	60

---

#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수행방법 및 과정	9
[그림 2-1] 도서관 시설 현황 (인구대비 면적)	15
[그림 2-2]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현황 (인구대비 면적)	15
[그림 2-3] 문예회관 시설 현황 (인구대비 면적)	15
[그림 2-4] 지방문화원 및 문화의집 시설 현황 (인구대비 면적)	15
[그림 2-5] 박물관 및 미술관 인구대비 전시 현황	16
[그림 2-6] 박물관 및 미술관 인구대비 프로그램 현황	16
[그림 2-7] 지방문화원 및 문화의집 인구대비 프로그램 현황	16
[그림 2-8] 도서관 시설 현황 (인구대비 운영예산)	17
[그림 2-9] 문예회관 시설 현황 (인구대비 운영예산)	17
[그림 2-10] 지방문화원 및 문화의집 시설 현황 (인구대비 운영예산)	17
[그림 2-11] 도서관 시설 현황 (인구대비 이용자 수)	18
[그림 2-12]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현황 (인구대비 이용자수)	18
[그림 2-13] 문예회관 시설 현황 (인구대비 이용자수)	18
[그림 2-14] 지방문화원 및 문화의집 시설 현황 (인구대비 이용자수)	18
[그림 2-15] 문화기반시설 합산 점수 결과(z점수)	21
[그림 3-1]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의견	41
[그림 3-2] 지역 문화기반시설 현황에 대한 주민 만족도 평균 (5점)	45
[그림 3-3] 문화기반시설 프로그램 선택기준에 대한 의견 조사결과(1,2순위)	46
[그림 3-4] 인접 다른 시군구의 문화기반시설 연계활용방안에 대한 의견 조사결과(문화기반시설 유형별)	49
[그림 3-5] 향후 문화기반시설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 중요도	50
[그림 3-6] 향후 문화기반시설 간 협력 증진 관련 중요도	52
[그림 4-1] 일본 도카이시 문화창조거점 구성도	95



지역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연구 배경

- 1) 문화기반시설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기에, 기관운영 내실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 정책방향이 필요함
  - 문화기반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화예술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등) 물적 인프라 증가 및 문화예술 활동지원, 인력지원에 대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역, 계층 및 세대별 불균형으로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제고를 위한 만족도가 미흡함
  - 문화시설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운영활성화를 위한 연계가 미흡하여 전반적인 운영관리 내실화 및 유기적인 협력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이 중요시되고 있음
    - 최근15년 박물관미술관이 3배 이상 증가하는 추세로 문화시설의 양적 팽창이 확인되는 바, 운영 내실화와 체계화를 위해 공고한 중장기 운영전략이 필요함

〈표 1-1〉 문화기반시설 확충 추이(2017~2021)

구분	공공도서관	공립박물관	공립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 등	계
2017년	1,010	853	229	564	2,656
2021년	1,172	900	271	740	3,083
연평균 증가량	40.5	11.75	10.5	44	106.7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년도 국정과제 추진실적 -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 p. 3

- 2) 지역에서 문화기반시설의 사회적 기능 수행이 요구되는 바, 활동기능 확대에 대한 대안 모색을 위해 기관 실태와 운영현황 파악이 필요함
  - 문화기반시설의 공급 및 서비스 전달에서 상대적인 지역 간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바, 개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등의 실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 문화기반시설의 한정적 자원과 인력, 운영방향 부재 등으로 인해 지역문화거점시설로서 기능수행의 제약이 확인되는 바, 기관들의 운영현황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
  
- 3) 문화기반시설의 체계화 및 협력증진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마련 시급
  -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문화기반시설의 장기휴관이 지속되어 기관들의 활동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과 문화시설을 통한 지역성장 전략 모색이 필요함
    - 환경변화에 대한 문화기반시설과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을 공동 활용하여, 문화기반시설을 통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상호 발전 도모가 필요
  - 지역사회에서 기관 간 협력 및 민간의 소통을 촉진하고 추후 실질적인 협업사업 발굴 및 협력활동을 추진하여 시너지 창출 가능성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별도 구분, 운영되고 있는 문화기반시설 간 상호 협력 기회 확대 및 다양한 협력분야 발굴이 요구됨

## 2. 연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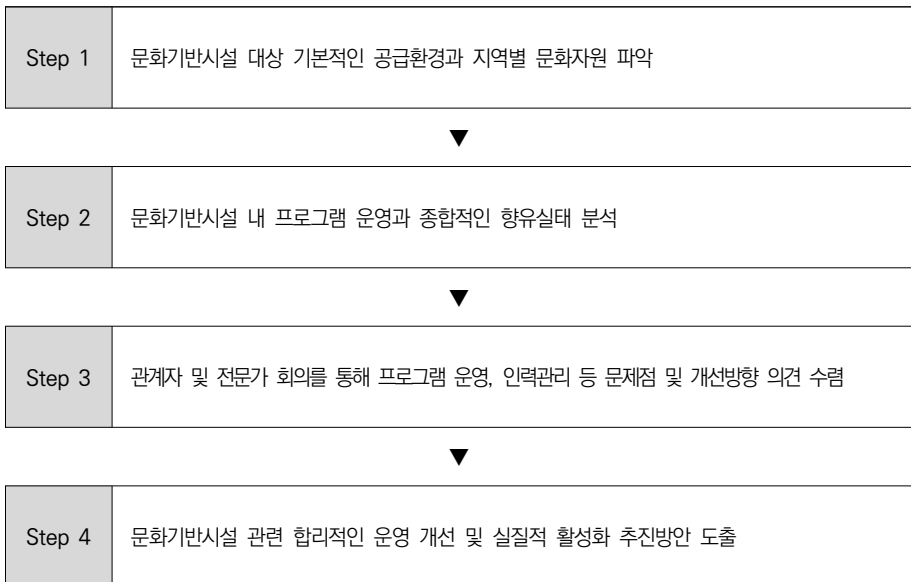
- 1) 문화기반시설 현황과 운영 체계 분석
  - 지역문화기반시설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생활문화시설(생활문화센터 등)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공급환경과 지역별 문화자원을 파악함
    - 지역 간 문화기반시설의 공급정보를 살펴보고, 기반시설들의 운영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역 기반에 맞는 공간운영 합리화를 위한 핵심사항을 검토함



- 문화기반시설들의 프로그램이용 및 운영체계를 다각적으로 분석함
  - 지역사회 내 문화기반시설을 대상으로 분야별, 지역별, 세대별 프로그램 운영과 종합적인 향유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추진체계를 분석함

## 2) 문화기반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 관계자 및 전문가 대상 FGI를 바탕으로 문화기반시설 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함
  - 현황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관련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회의를 추진하여 프로그램 운영, 인력관리 등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관한 의견을 수렴함
- 현재 문화기반시설 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 활성화 추진방안을 도출함
  - 지역사회의 문화인프라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 내 공간자원, 콘텐츠자원, 인적자원, 제도적 측면에서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 1. 연구 범위

#### 가. 시간적 범위

- 문화기반시설 현황은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의 연간이용자 수 및 기초통계자료에 대한 데이터가 통합 구축하기 시작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본 연구의 주요 범위로 설정함
  - 단,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을 통한 정량 분석은 최신 자료인 2021년 발행분을 기준으로 함

#### 나. 공간적 범위

- 문화체육관광부 및 등록 국립·공립 문화기반시설에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화예술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운영 및 구조적 문제점 분석을 전제로 함

#### 다. 내용적 범위

- 문화기반시설 관련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 문화시설 관련 지역 내 기본정보 및 유형별 실태를 파악함
  - 문화기반시설의 사업운영 프로그램 조사 및 관리진단을 수행함
- 문화기반시설의 설문조사 및 수요분석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화예술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파악함

- 운영 실태조사 항목을 개발하고, 설문조사표를 작성, 배부, 취합
-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운영 및 프로그램 유형, 만족도, 개선 요구사항 등 도출
- 국내외 기관 운영활성화 사례를 통한 성공적 운영요인 파악
  - 국내외 문화기반시설 운영 활성화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 도출
- 문화기반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 모색
  - 문화기반시설실태에 대한 검토를 통해 향후 체계적인 실효적 개선안 도출
  - 문화기반시설 지원 전달체계, 인적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지역문화정책 생태계 측면에서의 플랫폼 기능 모색
  -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사업운영 방안 모색 및 기관 간 공동역량을 강화 하는 활성화 방안 제시

## 2. 연구 방법

- 연구방법은 각 부문별 연구내용에 따라 적정방법을 활용함

### 가. 문헌연구 및 웹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기반시설 관련 정부문서, 연구기관 정책보고서
- 문화기반시설 관련 문헌, 포럼 자료집, 세미나 자료집, 지자체차원 사례 자료
- 웹사이트를 통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관련 정보

### 나. 문화기반시설 담당자 설문조사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에서 활동 하는 기관별 관련 담당자 및 실무진을 1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 내용은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의 조성 현황과 활용도 파악, 그리고 문화기반시설 인식, 향후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방향 등으로 구성함
-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협력체계를 갖춘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전 지역의 기반시설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는 현장실태 파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며 통계분석을 활용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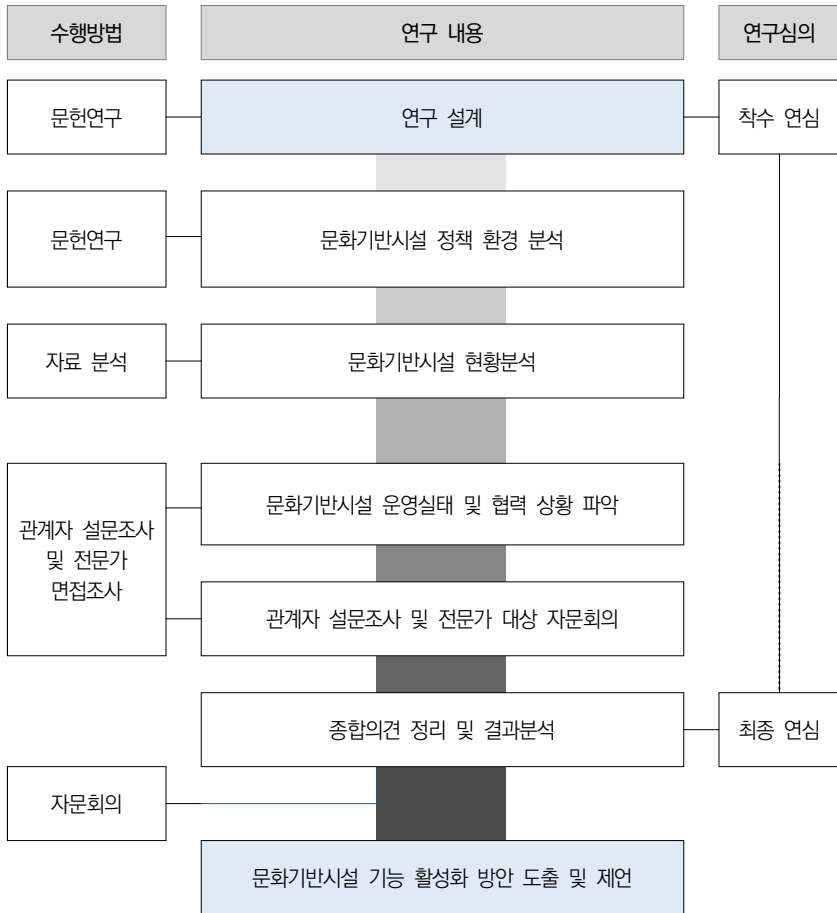
#### 다. 전문가의 의견조사

-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문화기반시설 관련 전문가 17명(대학교수, 지역연구기관 연구원 및 현장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지역의 정책 추진 현황과 중앙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목적으로 실시됨
- 기반시설의 운영 측면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차원에서의 격차해소 방향과 효과적인 활용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 청취

#### 라. 국내외 사례조사

- 국내외 문화기반시설 관련 사례분석을 통하여 성공요인을 판별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지역의 문화기반시설 현황에 접목이 가능한 우수사례들을 취사선택하고, 제도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유형들을 분석하고자 함

[그림 1-1] 연구의 수행방법 및 과정





지역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

제2장

## 문화기반시설 관련 현황 분석





# 제1절 지역 문화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 현황

## 1. 분석의 틀

### 가. 분석 목적 및 방법

- 본 분석은 기초자치단체 간 문화기반시설의 조성과 운영 관련 격차를 확인하기 위함임
- 통계청 승인통계인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을 통해 문화기반시설 간 분석이 가능한 항목을 구조화하여 분석함

### 나. 분석대상

- 2021년 1월 1일 기준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등재되어있는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화예술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을 주요범위로 지역별 분포 및 운영현황을 분석함
  - 일반 주민이 이용하기 어려운 사립, 대학, 교육청이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함
  - 시설면적, 프로그램, 운영예산 등의 데이터가 없는 생활문화센터는 분석에서 제외함

〈표 2-1〉 분석대상 문화기반시설

도서관(918)	박물관(437)	미술관(80)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 국립 4개 기관 • 지자체공공도서관 914개 기관	국공립 437개 기관	국공립 80개 기관	262기관	230기관	101기관
(제외) 사립 23기관, 교육청 235기관	(제외) 사립 358기관, 대학 105기관	(제외)사립 179기관, 대학 15기관			

## 다. 분석항목

- 기존 연구와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을 참고하여 9개 분석항목을 도출함
  - 문화기반, 문화콘텐츠, 문화지원·운영, 문화향유·소비 4개 분류에서 문화시설의 개수, 면적, 프로그램수, 운영일수, 직원수, 운영예산, 이용자 수 등 9개 항목

〈표 2-2〉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의 틀

분석관점	분석항목			
	문화기반	문화콘텐츠	문화지원운영	문화향유소비
문화향유 기회의 격차	- 문화시설의 개수 - 문화시설의 면적	- 문화프로그램수 - 운영일수	- 문화시설 직원수 - 운영예산	- 이용자 수 - 시설당 이용자수 - 프로그램당 이용자수

-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서 시설별 확인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음
  - ※ 4개 시설군 × 9개 분석항목 - (확인불가 6개) = 30개 항목
  - 확인불가 6개 항목 : 도서관 프로그램수, 도서관 운영일수, 도서관 프로그램당 집객력,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예산, 문예회관 프로그램수, 문예회관 프로그램당 집객력 등 6개 항목은 데이터가 없음
  - 생활문화센터의 확인 가능 항목이 타 시설대비 현저히 적어 분석이 불가능함

〈표 2-3〉 시설별 확인가능한 분석항목

구분	분석항목 (단위)	문화기반시설						
		①	②		③	④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생활문화 센터	지방 문화원	문화의집
문화기반	시설 개수	○	○	○	○	○	○	○
	시설 면적(㎡)	○	○	○	○	×	○	○
문화 콘텐츠	프로그램수 (전시,프로그램)	×	○	○	×	×	○	○
	운영일수(일)	×	○	○	○	△	×	△
문화지원 ·운영	직원수(명)	○	○	○	○	○	○	○
	운영예산(천원)	○	×	×	○	×	○	○
문화향유 ·소비	이용자 수(명)	○	○	○	○	×	○	○
	시설당 집객력	○	○	○	○	×	○	○
	프로그램당 집객력	×	○	○	×	×	○	○

①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

②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③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예회관

④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지방문화원,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의 집

※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운영일수의 '△'표시는 휴관일로 추정

## 2. 시설별 운영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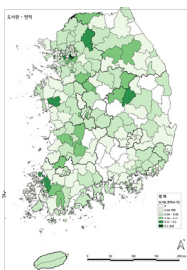
### 가. 문화기반 항목 분석 결과

- “문화기반” 항목은 「전국 지역문화기반시설 총람」에 조사된 ‘문화시설의 개수’, ‘문화시설의 면적’을 기준으로 분석대상 문화기반시설의 현황을 수치화 하였음
- “문화기반” 항목에서의 분석 종합 기준은 전국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였음
  - 전국 지자체의 평균 인구는 225,497명으로 절대값 및 상대값 도출의 기준값으로 적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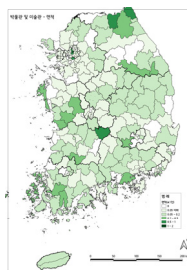
〈표 2-4〉 시설별 문화기반 항목 분석 결과

	절대값		상대값	
	시설개수 (개/평균)	시설 면적 (㎡/평균)	시설 개수 (개/1만명)	시설 면적 (㎡/인)
도서관	4.0	10,296	0.18	0.05
박물관 및 미술관	2.3	9,598	0.10	0.04
문예회관	1.1	15,974	0.05	0.07
지방문화원 및 문화의집	1.4	1,336	0.06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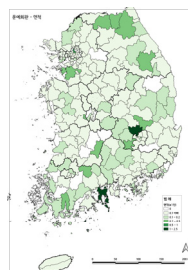
[그림 2-1] 도서관 시설 현황 (인구대비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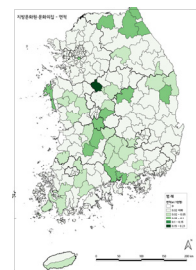
[그림 2-2]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현황 (인구대비 면적)



[그림 2-3] 문예회관 시설 현황 (인구대비 면적)



[그림 2-4] 지방문화원 및 문화의집 시설 현황 (인구대비 면적)



- 전국의 문화기반시설 중 가장 많은 인프라를 갖춘 곳은 도서관으로 지자체 평균 4개가 위치함. 면적이 가장 넓은 시설은 문예회관임
- 지방문화원 및 문화의집은 타 시설 대비 분포도가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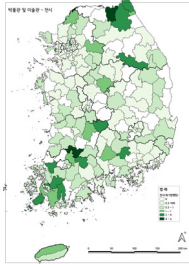
## 나. 문화콘텐츠 항목 분석 결과

- “문화콘텐츠” 항목은 「전국 지역문화기반시설 총람」에 조사된 ‘문화프로그램수’와 ‘운영일수’를 기준으로 분석대상 문화기반시설의 현황을 수치화 하였음
- 단, 도서관의 경우 해당 정보가 총람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됨
  - 프로그램 개수, 운영일수 등도 산정하기에 문화기반시설 간의 편차가 있으나 조사통계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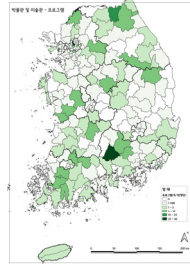
〈표 2-5〉 시설별 문화콘텐츠 항목 분석 결과

	절대값			
	전시 (개/연평균)	프로그램 (개/연평균)	연운영일수 (합계일)	연운영일수 (평균일)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4.8	17.8	477	211
문예회관		×	183.4	
지방문화원 및 문화의집		17.3	13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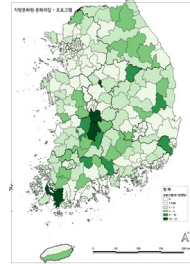
[그림 2-5] 박물관  
및 미술관 인구대비  
전시 현황



[그림 2-6] 박물관  
및 미술관 인구대비  
프로그램 현황



[그림 2-7] 지방문화원  
및 문화의집 인구대비  
프로그램 현황



- 박물관 및 미술관은 연평균 4.8개 전시가 추진되고 운영일수로는 477개로 2개 이상의 전시가 하나의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다수 열리고 있음을 시사함
- 반면 문예회관의 연운영일수 합계일은 183.4일로 연중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날을 짐작할 수 있음. 이는 공연 특성상 무대준비 일수 등이 있음을 이해해야 함
- 지방문화원 및 문화의집은 복합적인 성격의 시설이나 연운영일수는 가장 적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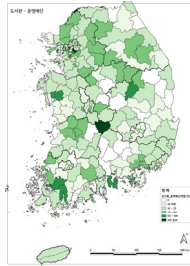
### 다. 문화자원·운영 항목 분석 결과

- “문화자원·운영” 항목은 「전국 지역문화기반시설 총람」에 조사된 ‘문화시설 직원 수’와 ‘운영예산’을 기준으로 분석대상 문화기반시설의 현황을 수치화 하였음
- 단, 박물관 및 미술관의 경우 자료 상 운영예산이 기재돼 있지 않아 분석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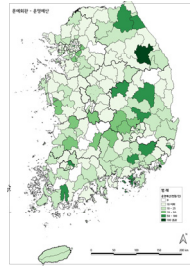
〈표 2-6〉 시설별 문화자원·운영 항목 분석 결과

	절대값		상대값	
	직원수 (명/평균)	운영예산 (천원/평균)	직원수 (명/1만명)	운영예산 (천원/인)
도서관	32.5	4,661,751	1.4	20.7
박물관 및 미술관	40	×	1.8	×
문예회관	30.1	2,987,476	1.3	13.3
지방문화원 및 문화의집	5.2	753,029	0.2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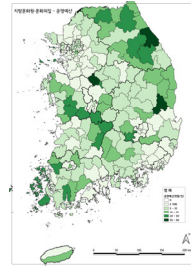
[그림 2-8] 도서관  
시설 현황  
(인구대비 운영예산)



[그림 2-9] 문예회관  
시설 현황  
(인구대비 운영예산)



[그림 2-10] 지방문화원  
및 문화의집 시설 현황  
(인구대비 운영예산)



- 시설 중 평균 직원수가 가장 많은 곳은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40명, 인구 12만명 당 1.8명으로 나타남
- 시설 중 운영예산이 가장 많은 곳은 도서관으로 인구 1인당 약 2만원으로 나타남
- 운영예산은 지자체의 정책방향과 재정상황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므로 지역별 편차에 대한 원인은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사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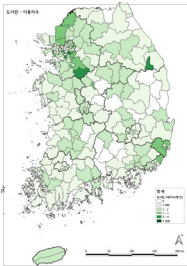
## 라. 문화향유·소비 항목 분석 결과

- “문화향유·소비”항 목은 「전국 지역문화기반시설 총람」에 조사된 ‘이용자수’, ‘시설당 이용자수’, ‘프로그램당 이용자수’를 기준으로 분석대상 문화기반시설의 현황을 수치화 하였음
- 도서관의 경우 프로그램당 집객 수가 조사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문예회관의 경우 프로그램 집객 수 데이터가 없어 분석에서 제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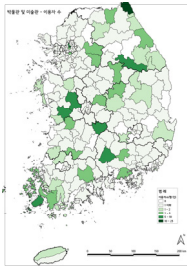
〈표 2-7〉 시설별 문화향유·소비 항목 분석 결과

	절대값		상대값	
	이용자 수 (명/평균)	시설당집객수 (명/개)	프로그램당 집객수(명/개)	이용자수 (명/평균)
도서관	277,706	53,941		1.23
박물관 및 미술관	101,285	30,547	5,747	0.45
문예회관	21,591	14,390	×	0.10
지방문화원 및 문화의집	48,343	37,781	4,163	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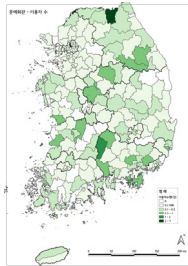
[그림 2-11] 도서관  
시설 현황  
(인구대비 이용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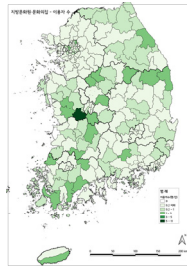
[그림 2-12]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현황  
(인구대비 이용자수)



[그림 2-13] 문예회관 시설 현황  
(인구대비 이용자수)



[그림 2-14] 지방문화원  
및 문화의집 시설 현황  
(인구대비 이용자수)



- 평균 이용자 수가 많은 시설 순은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지방문화원 및 문화의 집, 문예회관 순으로 나타남
- 각 지역별 인구로 나눈 상대값의 경우에도 도서관은 평균 1.23명이 이용해 기반시설 중 가장 많은 향유 비율을 보였음

### 3. 인구규모 대비 시설 현황

#### 가. 분석방법

- 전국 229개 시군구를 인구규모별로 '5만 미만(53개), 5~10만(40개), 10~30만(71개), 30~50만(41개), 50만 이상(24개)' 5단계로 나누어 분석함 (2021년 인구 기준)
  - 5만 미만 도시 53개, 5~10만 도시 40개, 10~30만 도시 71개, 30~50만 도시 41개, 50만 이상 도시 24개로 나타남

〈표 2-8〉 분석 지역

구분	시군구 수(개)	인구 수(명)	인구규모별	시군구 수(개)	인구 수(명)
서울	25	9,509,458	① 5만 미만	53	1,790,197
부산	16	3,350,380			
대구	8	2,385,412	② 5~10만	40	2,807,603
인천	10	2,948,375			
광주	5	1,441,611	③ 10~30만	71	13,698,631
대전	5	1,452,251			
울산	5	1,121,592	④ 30~50만	41	16,234,021
세종	1	371,895			
경기	31	13,565,450	⑤ 50만 이상	24	17,108,357
강원	18	1,538,492			
충북	11	1,597,427	계	229	51,638,809
충남	15	2,119,257			
전북	14	1,786,855			
전남	22	1,832,803	수도권-비수도권	시군구 수(개)	인구 수(명)
경북	23	2,626,609	수도권	66	26,023,283
경남	18	3,314,183	비수도권	163	25,615,526
제주	2	676,759	계	229	51,638,809
계	229	51,638,809			

자료: 통계청(<https://kosis.kr/>), 「주민등록인구현황」(2021), 행정안전부. 2021년 인구 기준.

- ① 도서관, ② 박물관 및 미술관, ③ 문예회관, ④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등 4개 시설군으로 구분하여 4개 표로 도출함
  - 각 항목별 개소, 규모 등의 합계 값을 시군구별 인구수로 나누어 상대값을 비교함

- z점수를 도출하여 결과값을 비교함
  - 각 시군구 문화기반시설의 종합적인 비교를 위해 표준점수인 z값을 구하여 결과값을 비교함
  - 표준화된 z점수는 해당 표본과 평균과의 차이를 표준편차로 나눈 값으로 서로 다른 분포에서 나온 값들을 비교할 수 있음. z값은 평균보다 크면 양의 값, 평균보다 작으면 음의 값이 나오고, 전체 z값의 총합은 0임

$$Z = \frac{X - \mu}{\sigma}$$

Z: 표본 X의 표준화 z점수  
 μ: 평균    σ: 표준편차

## 나. 시설별 합산 점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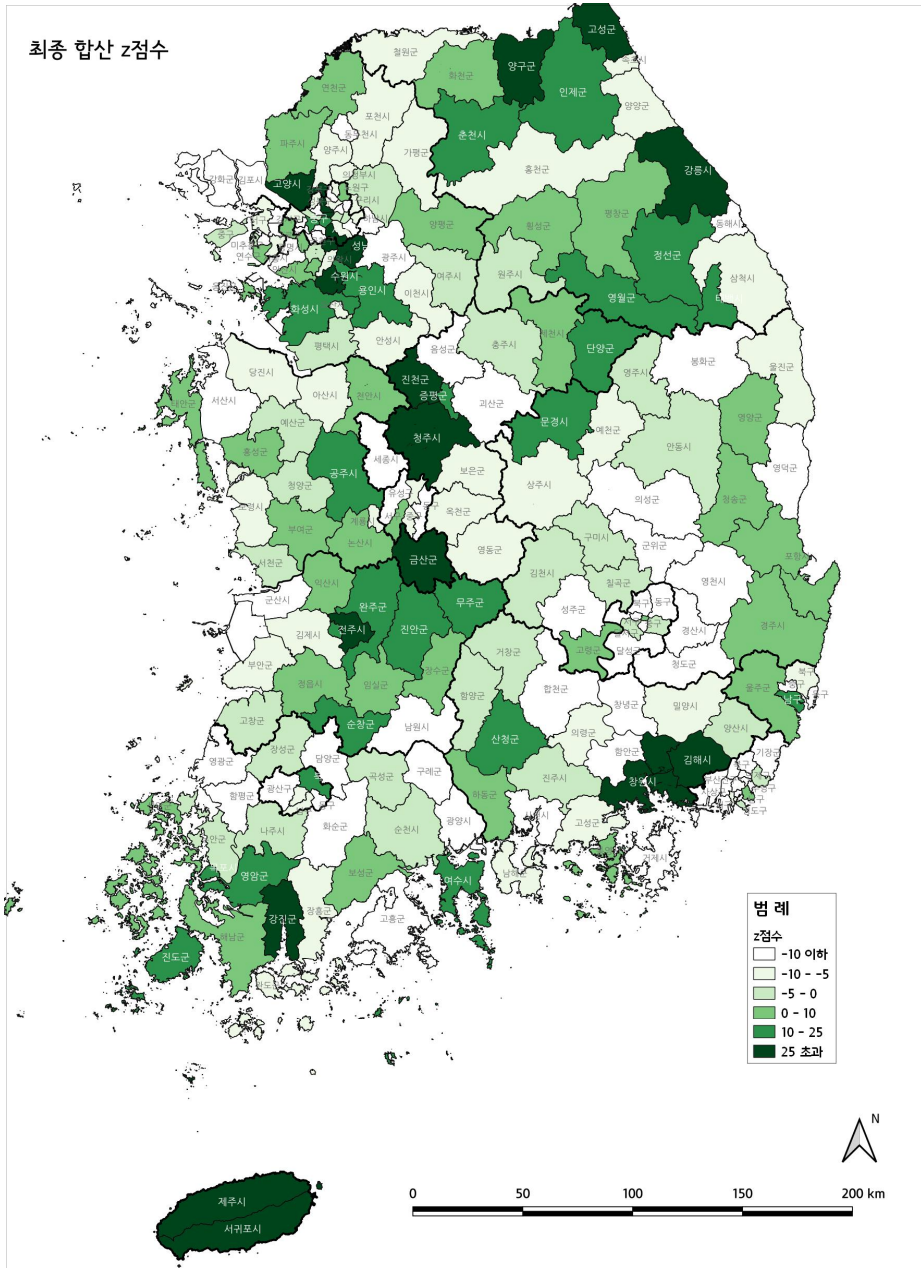
- 시설별로 구분하여 절대값과 상대값의 합산 z점수를 비교함
  - 절대적 시설 규모는 모두 수도권이 앞서지만 도서관을 제외한 시설은 모두 인구 대비 시설규모에서 비수도권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표 2-9〉 문화기반시설 최종 합산 점수

구분		절대값 z점수(점)				상대값 z점수(점)				종합(점)	
인구 규모	인구(명)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문화의집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문화의집	z점수 합계	
5만 미만 (53개)	33,777	-155.1	-64.0	-115.0	-99.9	-42.5	163.5	126.1	297.7	110.9	
5~10만 (40개)	70,190	-87.6	-25.5	-63.4	-27.3	28.0	25.2	10.9	56.5	-83.3	
10~30만 (71개)	192,938	-34.0	59.7	8.7	-17.8	13.4	-34.6	-28.1	-137.2	-169.8	
30~50만 (41개)	395,952	90.0	-15.8	17.1	40.4	-7.0	-96.0	-75.7	-133.7	-180.7	
50만 이상 (24개)	712,848	186.8	45.6	152.6	104.6	8.1	-58.2	-33.3	-83.2	322.9	
z점수 합계	수도권	394,292	227.4	11.8	56.1	14.3	106.8	-67.6	-79.7	-194.0	75.2
	비수도권	157,151	-227.4	-11.8	-56.1	-14.3	-106.8	67.6	79.7	194.0	-75.2
	전국	225,497	0	0	0	0	0	0	0	0	0



[그림 2-15] 문화기반시설 합산 점수 결과(z점수)



## 제2절 중앙정부 정책 현황

### 1. 문화기반시설 확충 지원 정책

#### 가. 도서관

##### 1) 공공도서관

- 정부는 도서관법에 의한 법정계획인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년~2023년)에 근거하여 선진국 수준의 공공도서관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은 지역의 교육·문화 중심지이며 복합문화정보공간인 공공도서관을 확충하여 전 국민의 정보·문화 향유권을 신장하고 도농 간 문화 및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공도서관의 건립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공연장, 전시장 등 연계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거나, 노후화 공공도서관의 리모델링 및 공간 재구성을 통해 평생 학습, 복합문화공간, 지역민의 소통(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하는 등 공공도서관의 양적인 확충과 더불어 질적인 측면에서도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 중임
- 사업수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총 건립비의 40% 범위 내에서, 농어촌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총 건립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16억 원까지 국고를 지원
  - 1991년부터 2020년도까지 1,370개관의 공공도서관 건립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158개관의 공공도서관 건립 및 리모델링을 지원함

## 2) 작은도서관

-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 문화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의 노후한 소규모 도서관을 리모델링하거나 공공건물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생활밀착형 소규모 도서관을 조성 지원함
- 지역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도서관 공간(서고, 열람공간, 모임공간 등) 조성비 및 운영에 필요한 소요물자(컴퓨터, 자료구입비 등) 구입경비 일부에 대해 국고 70% 범위 내에서 지원함

## 나. 박물관·미술관

### 1) 공립 박물관·미술관

- 정부는 공립 박물관·미술관 건립 지원 및 운영 내실화 사업을 추진,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전시 및 문화향유 증대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공립박물관에 대하여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총 건립비의 40%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함
  - 공립미술관은 2023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건립
  - 다만 시설 확충 중심의 정책에 따른 건립 후 운영 부진, 공립박물관·미술관 이용률 저조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립박물관·미술관의 무분별한 건립을 방지하기 위해 2012년부터 ‘공립박물관 건립사업 사전평가제’를 도입하여 설립단계에서부터 인력 운용 및 소장품 수집 계획, 건립 후 운영계획 등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2016년 공립박물관·미술관 사전평가를 법제화하여(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 2) 건립·운영과정의 부실화 문제를 예방하고 있음

### 2) 작은미술관

- 시각예술 소외지역의 유휴공간과 기존 전시시설을 작은미술관으로 조성하고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음

- 이는 전국 곳곳에 미술문화가 도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시각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임
  - 2021년 사업추진을 통해 신규조성 1개소(섬진강 작은미술관(전남 광양)), 지속 운영 2개소(누루 미술관(경남 밀양), 둔장마을 미술관(전남 신안)), 전시활성화 12개소(①Gachi Art Space(부산 중구) ②공간누보 작은미술관(제주), ③기억을 모으는 미술관 ART-TEA(강원 태백), ④뜻밖의 작은미술관(전북 전주), ⑤소금나루 작은미술관(울산 북구), ⑥옥적 작은미술관(전남 여수), ⑦바래길 작은미술관(경남 남해), ⑧장생포고래로131 작은미술관(울산 남구), ⑨작은미술관 보구곶(경기 김포), ⑩BRT 작은미술관(세종), ⑪악양 작은미술관(경남 하동), ⑫봉평곶등 작은미술관(강원 평창))를 지원함

#### 다. 문화시설 및 유희공간 리모델링 및 생활SOC 복합사업

- 국민 일상 속 문화예술 활동 확대를 위해 기존 문화시설 및 유희공간을 리모델링하거나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일상적 문화예술 활동공간인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 추진
  - 생활문화센터는 개인, 동호회 등을 위한 연습·발표 공간, 지역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커뮤니티 공간 및 북카페, 공연장 등 지역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문화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역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문화공간으로 조성됨
-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중심으로 지원하였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생활SOC 복합시설 형태의 생활문화센터를 중점적으로 조성함
  - 2023년부터는 지방이양됨

## 라. 문화 분야 BTL 사업

- 정부는 문화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문화 분야 BTL사업을 개선 추진함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은 민간의 자본과 전문분야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하여 부족한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민간은 적정수익률이 반영된 임대료를 통해 민간 투자비를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어 우수한 공공서비스 기회를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2005년부터 도입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2019년까지 문예회관,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문화복합시설 및 학교복합시설 등 30개 사업(6,839억 원)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함
-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총 30개소가 개개설되었으나 2011년 이후에는 추진 사업이 없으며 2020년부터 지방이양되어 지자체에서 전액 지방비로 추진함

## 2. 운영 지원 사업

### 가. 도서관

#### 1)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지원 사업은 직장인·학생 등 주간에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에게 야간에 자료실을 개방하여 도서관자료 및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임
- 2006년 11월부터 국립중앙도서관 및 16개 지역별 대표도서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다가 2007년에는 80개 도서관으로 확대 시행되었으며, 2021년에는 18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참여 공공도서관이 554개로 증가하면서 1,445개의 전문 인력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함
- 2023년부터 일반회계 사업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이관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확대될 예정임

## 2) 지역대표도서관 설립 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

- 지역대표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2조, 제23조에 따라 ‘해당지역의 도서관시책의 수립 지원, 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자료의 수집 및 제공, 지역의 공공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지역의 자료수집 지원 및 자료의 공동보존’ 등 광역지자체의 도서관정책을 집행하는 실질적 행정기구로서, 해당지역의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
  - 2006년 10월 「도서관법」 개정을 통해 도서관을 지식기반사회의 핵심적인 정보문화센터로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도서관정책 및 서비스 체계가 전면 개편됨
  - 이는 중앙 집중적인 도서관정책 체계 속에서 관종별로 분산 발전해 온 도서관서비스가 지역중심으로 전환되어, 광역시·도가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운영하는 등 지자체 단위로 조정·통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됨
- 시도에서는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설치하여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함
- 2021년 기준 총 17개 지역대표도서관이 지정·설립, 운영 중임

## 나. 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 운영활성화 지원

- 사립박물관·미술관을 통해 문화예술계 현장 예술인력 육성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음
  - 전체 박물관·미술관 중 사립박물관·미술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8%에 해당함
  - 2021년은 사업추진을 통해 사립·사립대학박물관에 258명, 사립·사립대학미술관에는 61명의 전문인력을 지원하였음

## 다. 지방문화원

### 1) 지방문화원 아카데미

- 2006년부터 전국 지방문화원을 대상으로 변화하는 사회적·정치적·문화적 환경 속에서 지역문화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지방문화원 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음

- 현장과 밀접한 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강의를 통해 사과의 범위를 넓히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체계적으로 키우는 데 목적이 있음
- 각 단계별 교육목표 및 대상이 명확하여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은 편이며, 문화원 평가에도 적용함으로써 참여도를 높이고 있음
  - 특히 문화원 간 정보공유 및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다양한 지역문화를 교류하는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 직급별(원장, 국장, 직원) 세미나를 통해 네트워크 구축, 정보 공유, 노하우 전수 등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 연수를 실시함

## 2)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 지원 사업

- 지방문화원의 자료와 지역을 대표할 설화, 향토사, 인물사 등 향토자료 및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역에 산재한 지역문화자원 등을 활용한 콘텐츠를 다양한 유형과 내용으로 개발·제작함으로써, 지역문화콘텐츠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 지방문화원 소장자료 전수조사로 부실한 관리체계와 관리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손망실될 위기의 지역문화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
- 지방문화원이 소장하고 있는 비전자자료의 전자화(디지털화)를 통해 물리적 노화 및 부패손실에 대비하고, 디지털 관리기반을 마련하여 소장자료를 보다 쉽게 보존·관리할 수 있게 함
  - 사업을 통해 개발된 콘텐츠 결과물은 ‘지역N문화’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유관기관에서 융합·활용 가능하도록 오픈 API를 개발함
  - 2021년까지 지역별 콘텐츠 265건, 기획콘텐츠 29개 주제, 7,900건을 개발하였고, 지방문화원 소장자료 70,968건의 DB 구축을 완료함

### 3)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소외된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산적·가치 지향적 문화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어르신들의 개인적·사회적 성취를 돕기 위해 2005년 시범사업 ‘땡땡땡! 실버문화학교’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총 4,134개 프로그램을 운영함
  - 2021년에는 노년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 문화예술을 매개로 어르신의 사회적 역할 부여 및 주체적 시민활동을 지원하는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등의 2개 사업으로 구성하여 총 18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함
  -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사회적으로 고립된 어르신이 안전하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비대면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추진, 총 7종의 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함

## 3. 전문인력 지원 정책

### 가.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사업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지역문화 진흥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문화전문인력(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양성기관 지정·지원(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 및 배치 지원 사업 등 교육과 일자리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문화인력 부족현상을 해결하여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부터 지역문화진흥의 핵심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배경은 지역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의 열악한 활동여건과 재교육 기회 부족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됨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은 2년 주기로 공모를 통해 지역주관기관을 지정하고 있음
- 연간 5천만 원 내외의 국고를 지원하며 교육과정은 총괄 주관기관인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입문과정, 통합과정, 심화과정과 지역주관기관에서 실시하는 지역과정, 연수과정으로 나뉨



- 지역과정은 총 5개월 간의 일정으로 지역의 특색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강좌형 이론교육, 실무 워크숍, 현장 사례연구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1,381명의 수료생을 배출함

#### 나. 지역문화전문인력 배치 지원 사업

- 지역문화전문인력 배치 지원 사업은 2017년부터 추진, 문화인력이 지역문화시설(지역문화재단, 생활문화센터 등)에서 근무하며 지역문화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임
- 인건비(국비 50%)와 프로젝트 기획·운영비 등 지원이 핵심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244개 기관, 254명의 인력을 지원함

#### 다.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사업

- 문화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문화 분야 현안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문제해결능력 배양으로 지역문화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
- 사업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문화재단 또는 대학, 문화예술관련 전문가 등 협업을 통해 지역문화 현안과제에 대한 실제적인 컨설팅을 실시하고 이를 지역문화 발전에 활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설계
- 사업내용은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 문화예술 정책 비전,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운영 개선,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문화 의제에 대한 종합 컨설팅 및 평가를 개발 등을 컨설팅 과제로 선정, 지원
- 2005년도부터 시작한 본 사업은 2019년까지 220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2007년부터 당해연도 컨설팅 사업을 평가, 우수 컨설팅 사업 2개를 선정하여 다음 연도 컨설팅 예산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는 등 민간 주도의 선진형 지역문화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데 기여함
- 2020년에 13개 시도 13개의 과제 수행을 끝으로 사업을 종료함

## 제3절 시사점

### 1. 기반시설 건립 및 운영 현황

#### 가. 양적증가와 노후화

- 「전국 지역문화기반시설 총람」에 조사된 '문화시설의 개수'를 기준으로 볼 때 도서관은 도시 평균 4개소, 박물관 및 미술관은 2.3개소, 문예회관은 1.1개소, 지방문화원 및 문화의집은 1.4개소임
- 이는 각 지역 당 1개소 이상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도서관의 경우는 4개소로 나타남
-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양적 증가는 1기초자치단체 당 1개 이상의 건립이 아닌, 특별·광역시 모형, 대도시모형, 도청소재지 모형, 기초시 모형, 기초군 모형, 낙후지역모형(복합문화공간) 등을 고려<sup>1)</sup>하여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음
- 그러나 2022년 현재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건립은 지방정부의 소관이며, 특히 복합문화공간의 경우는 양적증가 현황마저 중앙정부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함
- 다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사업이 1991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어 1,370개관이 건립되었는데, 이는 약 20여 년이 된 노후화 건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을 시사함
  -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시설 노후화는 시설 이용률 저하로 연결되며, 문예회관의 경우 운영일수에 밀접한 영향이 있을 것임을 시사함

1) 이원태(2004), 전국문화기반시설 최소기준수립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156쪽

## 나. 문화기반 및 운영 편차

- 지역 문화기반시설은 도서관이 인구 1만명당 0.18개로 가장 많이 건립됐고 문예회관이 1만 명 당 0.10개로 가장 적게 건립 돼 있음. 그러나 도서관의 경우 공휴일을 제외하고 특정 시간동안 상시 개방형인데 반하여 문예회관은 공연 및 프로그램 운영시에만 개방하는, 목적성이 상이하다는 것을 감안하여 편차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통계조사 대상 시설이었던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및 문화의집은 시설 간 설립 목적과 건립 기본법이 모두 상이함
- 이는 동일한 항목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 이해도가 모두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함
  - 예를 들어 도서관의 경우 프로그램 추진이 시설의 고유 목적이 아니기에, 프로그램 수행이 주 목적인 문화원에 비해 프로그램 수가 적게 조사될 수 있음
  - 그러나 이를 단순하게 ‘도서관은 문화원 대비 프로그램 수가 적다’라고 분석하는 것은 분석의 오류임
- 응답 이해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경우 연운영일수가 승인통계에서 드러나지 않았고, 박물관 및 미술관의 경우는 연 평균 211일을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방문화원 및 문화의집의 경우 일년 동안 운영하는 총 일수가 139일로 상시개방하는 형태는 아닌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 각 문화기반시설의 고유 역할에 기반하여 목적성에 맞는 프로그램과 부수적 문화 서비스 제공의 현황은 통계에 드러나지 않으므로 별도의 조사 및 인터뷰가 필요함

## 다. 주민 향유 및 소비 격차

- 「전국 지역문화기반시설 총람」의 분석 항목에서 ‘문화향유·소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시설당 집객 수는 도서관이 53,941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고 박물관 및 미술관(30,547명), 지방문화원 및 문화의집(37,781명), 문예회관(14,390명) 순으로 나타남
- 이는 도서관의 이용률이 가장 높고 문예회관의 이용률이 가장 낮다는 것인데 이는

시설 개방률과 프로그램 가동률과도 연관이 있음

- 도서관의 경우 상시 개방 및 시간대도 자유로운 반면 문예회관은 상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과 프로그램이 제한적이기 때문임
- 또한 「전국 지역문화기반시설 총람」의 분석 항목에서 ‘문화향유·소비’에 대해 분석하였으나 통계 내의 이용자가 모두 문화향유를 했다고 분석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 문화기반시설에서 이용자 수를 응답할 때 방문객을 응답하는지, 도서대출자, 프로그램 참여자, 공연전시 관람자 등을 응답하는지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즉, 문화기반시설 내에 화장실, 매점, 공원(공용공간) 등을 이용하기 위해 방문한 사람도 방문객으로 측정될 수 있는데, 이들은 시설 고유 목적을 위한 방문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향유자, 소비자로 인식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그러나 지역별로 문화향유·소비의 현황에 편차가 있고 특히 각 지역에 운영율이 높은 시설 유무에 따라 인구대비 이용자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기에 주민 향유는 시설과 운영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sup>2)</sup>

## 2. 중앙정부 정책 현황

### 가. 시설유형 중심 지원 지속

- 2021년을 기준으로 중앙정부가 문화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추진한 정책을 확인한 결과 시설 유형별 중심의 정책이 추진된 것을 확인하였음
- 이는 시설 유형별로 소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내 부서가 다르며 이에 따라 하위 지원조직 또한 상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 세부적으로 도서관의 경우 도서관정책기획단이, 박물관·미술관의 경우 문화기반과가, 생활SOC 중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정책기획단, 생활문화센터 건립은 문화기반과, 운영지원은 지역문화정책과가 담당하는 등 세부 업무사항에 따라 소관 부처가 다양하게 분포 돼 있음

2) 관련 내용은 보고서 17쪽 [그림 21]~[그림 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프로그램 운영지원 또한 도서관의 경우 한국도서관협회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박물관 미술관은 각 협회, 생활SOC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사업에 따라 위탁을 받는 등 다양화 되어 있음
- 즉, 시설 유형에 따라 정책소관부처가 다르므로 지역 내 타 문화기반시설의 현황 및 유사 프로그램 운영 등의 검토는 중요 사안이 아님
- 때문에 지역 내 시설 간의 교류협력보다 지역에 상관 없이 각 시설 간의 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 나. 지방분권 기초 후 건립 및 운영 지방이양

- 문화기반시설 건립은 목적에 따라 최대 40%의 건립비(부지매입비 제외)를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었고 생활문화센터 등으로 대표되는 생활SOC 건립사업에도 정부 지원이 있었으나 2023년부터는 도서관을 제외한 모든 시설 건립은 지방이양되었음
-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양적 성장 현황과 지방분권 관점에서 이를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나, 기 건립된 문화기반시설의 리모델링 필요 화두에 대해서는 정책적 방향성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 또한 정부의 문화기반시설 조성 정책에 근거하여 양적 성장을 이룬 이후 바람직한 운영 방안과 시설의 역할 및 문화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는 모두 지역에 일임하고 있어 지역 편차가 가중되는 원인으로 작용함
- 전문인력 양성 또한 단순 교육 프로그램 중심의 지원이므로 전문인력의 역량 기준과 역할에 대해 논의된 바 없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적자원의 역량 편차 및 수요 등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인프라(건립조성)와 소프트웨어(인적자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책 수요가 무엇인지 현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다. 공모 중심 간접 지원체계

- 중앙정부가 추진한 운영지원사업은 각 기반시설에서 사업에 공모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
- 도서관의 경우 지역별 ‘대표도서관’을 통해 개관시간연장 등 특정 정책사업들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그 외의 기반시설은 대표 혹은 허브 역할 근거가 없음
- 실질적으로 지역 내에서도 시설의 운영 방침, 기관장의 운영 전략, 구성 인력의 역량 등에 따라 중앙정부 추진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도 편차가 있음
- 이는 사업 수행 의지가 높고 역량있는 문화기반시설이 공모 사업에 참여하게 될 확률이 높아짐을 의미함
- 또한 공모 지원은 강제성이 없고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간접적 지원이므로 상대적으로 역량강화 사업이 필요하거나 운영일수가 낮아 적극적인 운영이 필요한 시설에는 정책 참여 의지조차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음

#### 라. 대상 특화에 따른 현황

- 지방문화원의 경우 정책적으로 시설 기반 서비스 타깃 세대가 장년층, 노년층으로 특화되어 있음
- 이는 정부가 지방문화원의 운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관련 운영 프로그램도 중장년, 노년층을 위한 것이었음으로도 확인할 수 있음
- 지방문화원이 조성되는 곳과 조성 목표가 있기에 각 지역에서 골고루 분포되거나 운영 현황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함
- 문화기반시설이 각 지역에 고르게 분포되지 않은 이유가 곧 수요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조성 정책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야 함
- 즉, 문화기반시설 조성 정책에는 인구대비, 지역 특성 이외에도 어떠한 어떤 대상을 위한 시설이 설립되는가를 분석해야 하는데, 이러한 특징은 2020년 이후 건립 비율이 높아진 ‘복합문화공간’과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마. 정책 수요 파악

- 「전국 지역문화기반시설 총람」의 분석은 지역 간의 편차를 확인하기 위함이 아닌, 인구규모, 인구대비 문화기반시설의 기반, 콘텐츠, 자원, 향유 등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결과로 인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분석 결과, 문화기반시설은 지역의 규모(읍·면·동)에 따라 기반 및 운영의 편차가 드러났고, 이는 각 분석 항목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지역의 문화정책 방향성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 특화, 문예회관 특화 등이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성 정책이 가장 먼저 시작된 도서관에 비해 타 문화기반시설들의 편차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중앙정부의 역할은 직접적 예산지원 이외에도 공모사업을 통한 운영 간접지원과 생활문화센터와 같이 운영모델 가이드라인 제공 등을 통한 방법 제시 등 비예산 확산 사업이 가능함
- 때문에 정책 수요에 따른 다양한 방식의 정책 보조가 수행되어야 함

### 3. 지역 수요 분석 한계

#### 가. 공식 운영 현황 부재

- 「전국 지역문화기반시설 총람」은 보고통계로 시설이나 지자체가 질문에 응답하는 자료수집 형태임
- 이는 모집단을 관찰하여 객관적으로 수집하는 조사통계와 달리 응답자의 질문에 이해 수준과 작성 기준에 따라 정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문화기반시설에서 작성하는 항목 중 인력, 예산, 프로그램의 수, 개관일 등은 시설 간에 이해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고 응답 기준 시점에 따라 편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음

## 나. 온라인 활용 격차

- 「전국 지역문화기반시설 총람」에서는 각 시설이 온라인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음
- 그러나 실제 각 문화기반시설은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거나 지자체 홈페이지 내에서의 공지사항, 문화재단 홈페이지 공동이용, SNS 계정 운영 등을 통해 최소 1개 이상의 온라인 기반을 활용하고 있음
- 그러나 이 또한 시설의 규모와 운영주체 등에 따라 활용의 격차가 두드러짐
- 이는 이미 문화기반시설 내 ‘온라인 기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와 더불어 지역 및 시설 간의 활용 편차가 매우 다양함을 시사함

## 다. 관종별 전문인력체계 상이

- 문화기반시설은 관종별 관련 전문인력이 있음. 도서관은 사서, 박물관 및 미술관은 학예사, 문예회관은 무대예술전문인력이 자격요건에 의해 전문인력으로서 배치됨
- 그러나 지역문화원 및 문화의집과 생활문화센터 등 지역문화 기반으로 복합적 역할을 하는 시설에는 관련 전문인력체도가 없음
- 다만 지역문화진흥원은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 사업 및 배치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지방문화원은 아카데미를 통해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보조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문화기반시설 운영, 프로그램 기획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전문인력의 유무와 인력보유 수는 시설의 전문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사항으로 작용함
- 전문인력이 필수화 된 시설은 지침에 근거한 배치가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확인하고 전문인력에 대한 논의가 없는 시설은 필요성을 점검해야 함



지역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

제3장

## 문화기반시설 관련 인식 조사



# 제1절 관계자 및 담당자 설문조사

---

## 1. 설문조사 개요

### 가. 조사 목적

- 본 조사의 목적은 세 가지임. 첫째,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의 조성 현황과 활용도 및 이용 현황 파악, 둘째, 문화기반시설 관련 인식, 셋째, 향후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방향 의견수렴임
- 문화기반시설의 조성 현황과 활용도 및 이용 현황의 경우 승인통계로 검토하기 어려운 체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구성하고 ‘만족도’ 등을 질문하여 통계상에서 드러나지 않는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 나. 조사 대상 및 방법

- 조사는 지역에 대한 현황파악과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므로 지역문화기반시설 중 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문화원, 생활문화센터 및 복합문화시설에서 근무 중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함
-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협력체계를 갖춘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전 지역의 기반시설 담당자에게 설문 협조를 공지하였고 무작위 선착순 101명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 협조 유관기관은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박물관협회, 지역문화진흥원임
  - 선착순 100명의 의견을 수렴하는 가운데, 동시 입력자 발생으로 최종 응답자는 101명으로 설문이 종료되었음
-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조사로 진행되었으며 95%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pm 8.90\%$ 임

〈표 3-1〉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의견 조사 개요

항목	조사 내용
목적	지역 문화기반시설 실태 현황 및 향후 발전방향
대상	전국 문화기반시설 근무자
기간	2022년 9월 23일~9월 30일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기반시설 관련 현황조사 (6문항)</li> <li>• 문화기반시설 관련 인식조사 (5문항)</li> <li>• 향후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방향 (3문항)</li> </ul>
방법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온라인 조사
응답자	101명

#### 다. 응답자 특성

- 설문 응답자는 총 101명이며 세부 응답자 특성은 아래 표와 같음

〈표 3-2〉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의견 조사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	%	구분		사례수	%
성별	남	27	26.7	근무 지역	서울	30	29.7
	여	74	73.3		부산	5	5.0
연령	20대 이하	12	11.9		대구	4	4.0
	30대	52	51.5		인천	3	3.0
	40대	21	20.8		광주	5	5.0
	50대	12	11.9		경기	18	17.8
	60대	3	3.0		강원	5	5.0
	70대 이상	1	1.0		충북	9	8.9
	근무 시설 유형	도서관	27		26.7	충남 (세종시 포함)	2
박물관		32	31.7		전북	3	3.0
문예회관		1	1.0	전남	3	3.0	
지방문화원		1	1.0	경북	7	6.9	
문화의집		30	29.7	경남	5	5.0	
생활문화센터		10	9.9	제주	2	2.0	
근무 형태 (직군)	공무원 (일반 행정직)	8	7.9	세부 근무 지역	특별시,광역시 자치구 등 지역	47	46.5
	전문직 공무원 (사서, 학예사)	20	19.8		일반시 등 지역	26	25.7
	계약직	27	26.7		읍/면지역	28	27.7
	위탁기관직원	33	32.7	총계		101	100
	기타	13	12.9				

## 2.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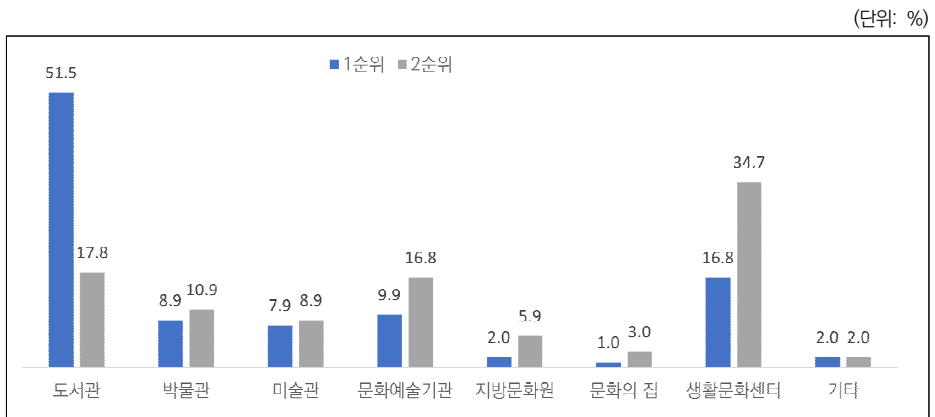
### 가. 문화기반시설 관련 현황

#### 1) 문화기반시설 선호 유형 및 이용 범위

##### ①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문화기반시설

- 주민들이 1순위로 많이 방문하는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조사결과 ‘도서관’이 51.5%로 가장 높았으며, ‘생활문화센터’가 16.8%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3-1]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의견



〈표 3-3〉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의견 조사결과(1순위)

(단위: %)

구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기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생활문화센터	기타
사례수	52	9	8	10	2	1	17	2
%	51.5	8.9	7.9	9.9	2	1	16.8	2

##### ② 문화기반시설 방문 지역 범위

-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문화기반시설의 범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인접하는 시군구까지’가 37.6%로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거주하는 시군구 내’가 36.6%로 나타남

- 지역별 응답을 살펴보면 서울(44.4%), 충북(33.3%)에서 '거주하는 마을' 내 문화기반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까운 범위 내 문화기반시설이 많이 분포해있는 서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거주지 범위 내 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까지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4〉 문화기반시설 이용 범위에 대한 의견 조사결과

(단위: %)

구분	거주하는 마을	거주하는 시군구 내	인접하는 시군구까지	원거리 시군구	기타
사례수	9	37	38	16	1
%	8.9	36.6	37.6	15.8	1.0

〈표 3-5〉 문화기반시설 이용 범위에 대한 의견 조사결과(지역별)

(단위: %)

구분	사례수	거주하는 마을	거주하는 시군구 내	인접하는 시군구까지	원거리 시군구	기타
전체	(101)	9	37	38	16	1
서울	30	44.4	27.0	23.7	37.5	100.0
부산	5	0.0	8.1	5.3	0.0	0.0
대구	4	0.0	0.0	5.3	12.5	0.0
인천	3	0.0	2.7	5.3	0.0	0.0
광주	5	11.1	5.4	5.3	0.0	0.0
경기	18	11.1	21.6	13.2	25.0	0.0
강원	5	0.0	2.7	5.3	12.5	0.0
충북	9	33.3	10.8	5.3	0.0	0.0
충남 (세종시 포함)	2	0.0	2.7	0.0	6.3	0.0
전북	3	0.0	5.4	2.6	0.0	0.0
전남	3	0.0	0.0	7.9	0.0	0.0
경북	7	0.0	2.7	13.2	6.3	0.0
경남	5	0.0	8.1	5.3	0.0	0.0
제주	2	0.0	2.7	2.6	0.0	0.0

### ③ 문화기반시설 방문까지 소요시간 의견

- 문화기반시설까지 교통편을 이용해 이동할 경우 소요되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30분 이내'라는 응답이 58.4%로 나타남
  - '10분 이내' 소요된다는 응답도 21.8%로 대부분 문화기반시설의 접근성이 좋은 것으로 보임

〈표 3-6〉 문화기반시설까지 소요시간에 대한 의견 조사결과

(단위: %)

구분	10분 이내	30분 이내	1시간 이내	기타
빈도	22	59	19	1
%	21.8	58.4	18.8	1.0

〈표 3-7〉 문화기반시설까지 소요시간에 대한 의견 조사결과(문화기반시설 유형별)

(단위: %)

구분	사례수	10분 이내	30분 이내	1시간 이내	기타
도서관	(52)	26.9	59.6	13.5	0.0
박물관	(9)	22.2	55.6	22.2	0.0
미술관	(8)	0.0	25.0	75.0	0.0
문화예술기관	(10)	0.0	100.0	0.0	0.0
지방문화원	(2)	0.0	50.0	50.0	0.0
문화의 집	(1)	100.0	0.0	0.0	0.0
생활문화센터	(17)	29.4	47.1	17.6	5.9
기타	(2)	0.0	100.0	0.0	0.0

### ④ 선호하는 문화향유 형태

- 문화기반시설에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싶은 문화향유의 형태는 '경험, 체험형'이 66.3%로 가장 높게 나왔음.
  - 그 다음으로는 '강의 교육형'과 '관람감상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문화기반시설 유형별 선호 문화향유 형태를 비교해보면 박물관에서 기존 응답 외 '현장답사형' 참여에 대한 의견도 나타남. 이는 박물관의 유물 및 소장품과 관련된 야외공간에서의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임

〈표 3-8〉 참여 문화향유 형태에 대한 의견 조사결과

(단위: %)

구분	관람감상형	경험, 체험형	현장답사형	강의 교육형	교류 참여형	기타
빈도	13	67	4	14	2	1
%	12.9	66.3	4.0	13.9	2.0	1.0

〈표 3-9〉 참여 문화향유 형태에 대한 의견 조사결과(문화기반시설 유형별)

(단위: %)

구분	사례수	관람감상형	경험, 체험형	현장답사형	강의 교육형	교류 참여형	기타
도서관	(27)	11.1%	59.3%	0.0%	25.9%	0.0%	3.7%
박물관	(32)	9.4%	78.1%	9.4%	3.1%	0.0%	0.0%
문예회관	(1)	0.0%	100.0%	0.0%	0.0%	0.0%	0.0%
지방문화원	(1)	0.0%	0.0%	0.0%	100.0%	0.0%	0.0%
문화의집	(30)	13.3%	60.0%	3.3%	16.7%	6.7%	0.0%
생활문화센터	(10)	30.0%	70.0%	0.0%	0.0%	0.0%	0.0%

### ⑤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주민 만족도

-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77.2%로 나왔고, 이는 5점 만점 중 평균 3.93점에 해당하는 수치임. '보통'이라는 의견이 19.8%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없음

〈표 3-10〉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주민 만족도 의견 조사결과

(단위: %)

구분	불만족 (매우 불만족 +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 + 매우 만족)	평균 (5점)
빈도	3	20	78	3.93
%	3.0	19.8	77.2	

〈표 3-11〉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주민 만족도 의견 조사결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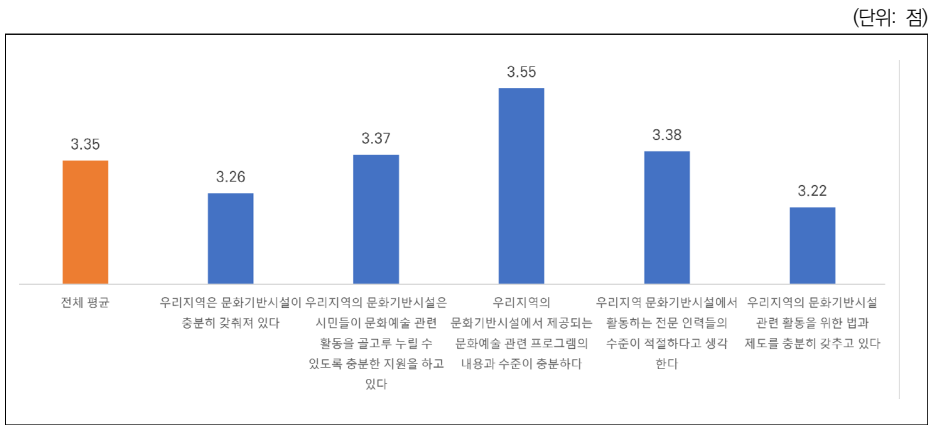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평균 (5점)
빈도	1	2	20	58	20	3.93
%	1.0	2.0	19.8	57.4	19.8	



## ⑥ 항목별 문화기반시설 만족도

- 전반적으로 문화기반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콘텐츠, 운영 인력, 시설의 지원 등에는 만족도가 높았지만, 절대적인 문화기반시설의 수나 법, 제도 등은 만족도가 다소 떨어지는 경향을 보임.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개선해야할 점으로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함

[그림 3-2] 지역 문화기반시설 현황에 대한 주민 만족도 평균 (5점)



<표 3-12> 지역 문화기반시설 현황에 대한 주민 만족도 의견 조사결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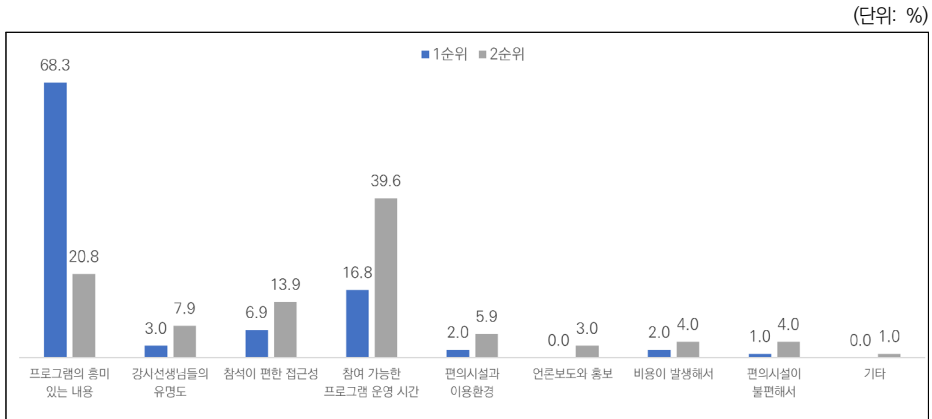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
① 우리지역은 문화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	3.0	22.8	31.7	30.7	11.9	3.26
② 우리지역의 문화기반시설은 시민들이 문화예술 관련 활동을 끌고올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다	5.9	15.8	27.7	36.6	13.9	3.37
③ 우리지역의 문화기반시설에서 제공되는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준이 충분하다	2.0	12.9	32.7	32.7	19.8	3.55
④ 우리지역 문화기반시설에서 활동하는 전문 인력들의 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6.9	14.9	25.7	38.6	13.9	3.38
⑤ 우리지역의 문화기반시설 관련 활동을 위한 법과 제도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7.9	12.9	39.6	28.7	10.9	3.22

## 나. 문화기반시설 관련 인식

### ① 문화기반시설 프로그램 선택 기준

- 문화기반시설 프로그램에 참여를 결정짓는 선택기준은 '프로그램의 흥미 있는 내용'이 68.3%로 가장 높게 나타남. 2순위로 중요한 기준은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 시간'인 것으로 응답함
- 이는 흥미를 끌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흥미로운 콘텐츠를 위해서는 기꺼이 시간을 낼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그러나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에 운영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그림 3-3] 문화기반시설 프로그램 선택기준에 대한 의견 조사결과(1,2순위)



<표 3-13> 문화기반시설 프로그램 참여 선택기준에 대한 의견 조사결과(1순위)

(단위: %)

구분	프로그램의 흥미 있는 내용	강사선생님들의 유명도	참석이 편한 접근성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 시간	편의시설과 이용환경	비용이 발생해서	편의시설이 불편해서
빈도	69	3	7	17	2	2	1
%	68.3	3.0	6.9	16.8	2.0	2.0	1.0

## ② 문화기반시설 이용 어려움에 대한 의견

- 문화기반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에 대한 질문에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알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49.5%고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 ‘의향이 있었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19.8%, ‘교통이 불편해서’라는 응답이 15.8%로 나타남
- 이는 지역 차원에서 적극적인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홍보, 프로그램 일정 및 콘텐츠 등 정기적인 정보 안내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표 3-14〉 문화기반시설 이용 어려움에 대한 의견 조사결과

(단위: %)

구분	교통이 불편해서	참여하고 싶은 문화프로그램이 없어서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알지 못해서	의향은 있었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주변 가까운 곳에 문화기반시설이 없어서	비용이 발생해서
빈도	16	2	50	20	10	3
%	15.8	2.0	49.5	19.8	9.9	3.0

## ③ 문화기반시설 간 지역 차이에 대한 의견

- 지역 간 문화기반시설 차이에 대해서는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의견이 도출됨(47.5%)
  - 다음으로 ‘도시-농촌지역 간 격차’가 22.8%로 나타났으나, 수도권-비수도권 차이에 비하면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로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문제가 시급하다는 점을 의미함
- 이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지역이 보유한 문화기반시설의 수, 규모, 운영 인력, 프로그램의 내용 및 수 등이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다양하다는 점을 시사함. 전반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일정 수준의 문화향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표 3-15〉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화기반시설 간 지역 차이에 대한 의견 조사결과

(단위: %)

구분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대도시-주변도시 간 격차	도시-농촌지역 간 격차	지역 내 시군구 격차	원도심-신도심 간 격차
빈도	48	9	23	12	9
%	47.5	8.9	22.8	11.9	8.9

#### ④ 문화기관 단체와의 네트워크 의견

- 지역 내 위치한 다른 문화기반시설과의 네트워크 교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가끔 만나서 교류하고 있다’는 응답이 52.5%로 가장 많았음
  - 협력·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전혀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은 29.7%, 잘 이루어진다는 긍정적인 의견은 17.8%로 나타나며 지역 간 교류가 다소 활발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도출됨

〈표 3-16〉 지역 내 다른 문화기관 단체들과의 네트워크 교류에 대한 의견 조사결과

(단위: %)

구분	전혀 협력·교류가 없다	협력·교류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가끔 만나서 교류하고 있다	협력·교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협력·교류가 매우 잘 이루어지 고 있다
빈도	8	22	53	17	1
%	7.9	21.8	52.5	16.8	1.0

#### ⑤ 인접 시군구와의 문화기반시설 연계 활용 의견

- 인근 지역 시군구 문화기반시설과의 연계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56.4%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다’(20.5%), ‘매우 필요하다’(19.8%)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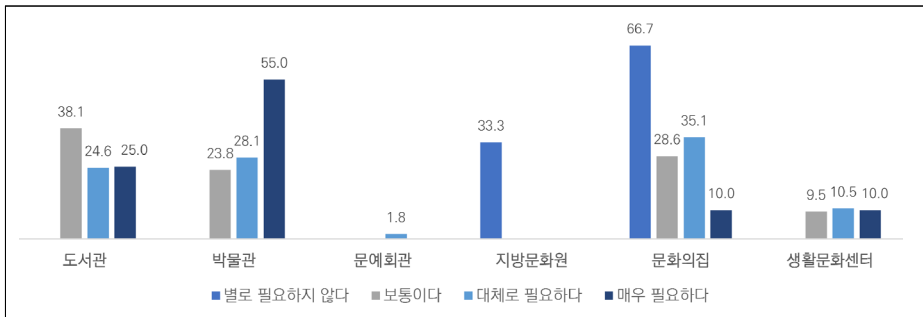
〈표 3-17〉 인접 다른 시군구의 문화기반시설 연계활용방안에 대한 의견 조사결과

(단위: %)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빈도	0	3	21	57	20
%	0.0	3.0	20.8	56.4	19.8

[그림 3-4] 인접 다른 시군구의 문화기반시설 연계활용방안에 대한 의견 조사결과(문화기반시설 유형별)

(단위: %)



<표 3-18> 인접 다른 시군구의 문화기반시설 연계활용방안에 대한 의견 조사결과(문화기반시설 유형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총계	(101)	100.0	100.0	100.0	100.0
도서관	(27)	0.0	38.1	24.6	25.0
박물관	(32)	0.0	23.8	28.1	55.0
문예회관	(1)	0.0	0.0	1.8	0.0
지방문화원	(1)	33.3	0.0	0.0	0.0
문화의집	(30)	66.7	28.6	35.1	10.0
생활문화센터	(10)	0.0	9.5	10.5	10.0

- 응답자가 근무하는 문화기반시설 유형별로 응답을 살펴보면 박물관 종사자가 타 지역 문화기반시설 연계활용방안에 가장 적극적인 의견(55.0%)을 제시함
- 반면 문화의집 근무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계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66.7%)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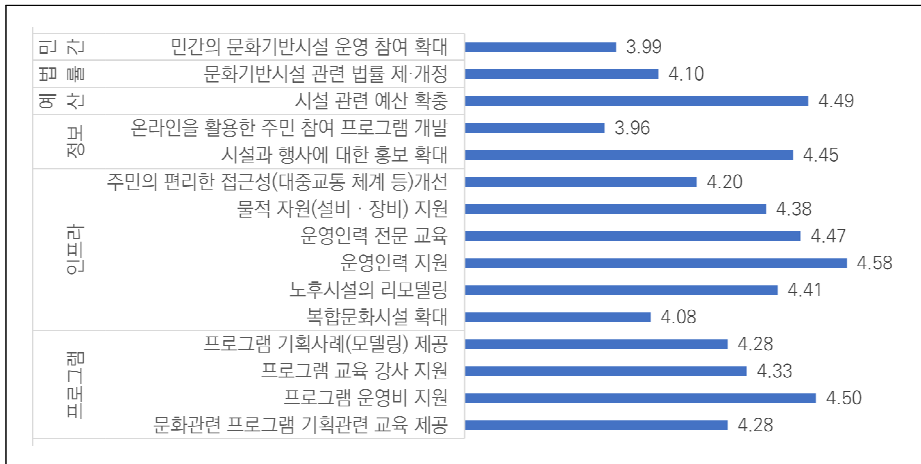
## 다. 향후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방향

### ① 문화기반시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중요도

- 향후 문화기반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한 문항에서 ‘운영인력 지원’(4.58점)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함
  - 그 다음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4.50점), ‘시설 관련 예산 확충’(4.49점)이 중요하다고 응답함
- 인프라와 관련된 항목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시설의 확충 및 개선보다 운영인력이나 설비·장비 등의 지원을 더 중요시 함
- 인력, 예산 외에 ‘시설과 행사에 대한 홍보 확대’(4.45점)도 중요한 항목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3-5] 향후 문화기반시설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 중요도

(단위: 점)



〈표 3-19〉 향후 문화기반시설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 중요도에 대한 의견 조사결과

(단위: %, 점)

항목		중요도					평점
		중요도 낮음 ←		중요도		→ 중요도 높음	
		1	2	3	4	5	
프로그램	문화관련 프로그램 기획관련 교육 제공	1.0	0.0	15.8	36.6	46.5	4.28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0.0	1.0	8.9	28.7	61.4	<b>4.50</b>
	프로그램 교육 강사 지원	1.0	3.0	12.9	28.7	54.5	4.33
	프로그램 기획사례(모델링) 제공	0.0	4.0	8.9	42.6	44.6	4.28
인프라	복합문화시설 확대	3.0	1.0	21.8	33.7	40.6	4.08
	노후시설의 리모델링	1.0	2.0	8.9	31.7	56.4	4.41
	운영인력 지원	0.0	1.0	6.9	24.8	67.3	<b>4.58</b>
	운영인력 전문 교육	1.0	2.0	5.9	31.7	59.4	<b>4.47</b>
	물적 자원(설비·장비) 지원	0.0	3.0	8.9	35.6	52.5	<b>4.38</b>
	주민의 편리한 접근성(대중교통 체계)개선	1.0	1.0	20.8	31.7	45.5	4.20
정보	시설과 행사에 대한 홍보 확대	0.0	0.0	8.9	37.6	53.5	<b>4.45</b>
	온라인을 활용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	0.0	3.0	29.7	35.6	31.7	3.96
예산	시설 관련 예산 확충	0.0	0.0	6.9	37.6	55.4	<b>4.49</b>
법률	문화기반시설 관련 법률 제·개정	0.0	3.0	26.7	27.7	42.6	4.10
민간	민간의 문화기반시설 운영 참여 확대	1.0	4.0	25.7	33.7	35.6	3.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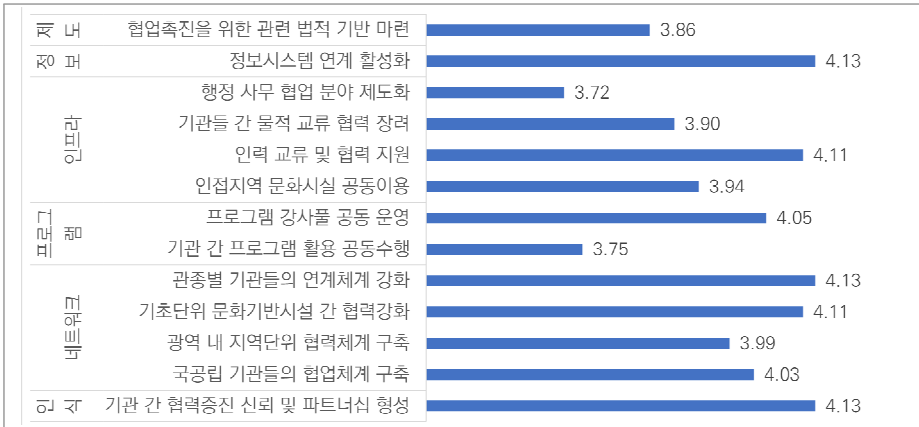
## ② 문화기반시설 간 협력 증진 중요도

- 문화기반시설 간 협력 증진을 위해 중요한 추진사항에 대한 문항에서 ‘기관 간 협력증진 신뢰 및 파트너십 형성’, ‘관종별 기관들의 연계체계 강화’, ‘정보시스템 연계 활성화’가 모두 4.1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기초단위 문화기반시설 간 협력강화’와 ‘인력 교류 및 협력 지원’은 4.11점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 ‘프로그램 강사풀 공동 운영’(4.05점), ‘국공립 기관들의 협업체계 구축’(4.03점) 순으로 협력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보임
- 우선적으로 지역 간, 기관 간, 문화기반시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 결과를 해석할 수 있음

[그림 3-6] 향후 문화기반시설 간 협력 증진 관련 중요도

(단위: 점)



<표 3-20> 향후 문화기반시설 간 협력 증진 관련 중요도에 대한 의견 조사결과

(단위: %, 점)

구분	항목	중요도					평점
		1	2	3	4	5	
인식	기관 간 협력증진 신뢰 및 파트너십 형성	0.0	0.0	17.8	51.5	30.7	<b>4.13</b>
네트워크	국공립 기관들의 협업체계 구축	1.0	0.0	24.8	43.6	30.7	<b>4.03</b>
	광역 내 지역단위 협력체계 구축	1.0	2.0	25.7	39.6	31.7	3.99
	기초단위 문화기반시설 간 협력강화	1.0	2.0	17.8	43.6	35.6	<b>4.11</b>
	관종별 기관들의 연계체계 강화	2.0	3.0	12.9	44.6	37.6	<b>4.13</b>
프로그램	기관 간 프로그램 활용 공동수행	1.0	5.9	29.7	43.6	19.8	3.75
	프로그램 강사풀 공동 운영	1.0	5.9	17.8	37.6	37.6	<b>4.05</b>
인프라	인접지역 문화시설 공동이용	0.0	4.0	26.7	40.6	28.7	3.94
	인력 교류 및 협력 지원	0.0	3.0	15.8	48.5	32.7	<b>4.11</b>
	기관들 간 물적 교류 협력 장려	0.0	3.0	27.7	45.5	23.8	3.90
	행정 사무 협업 분야 제도화	0.0	9.9	33.7	30.7	25.7	3.72
정보	정보시스템 연계 활성화	0.0	2.0	18.8	43.6	35.6	<b>4.13</b>
제도	협업추진을 위한 관련 법적 기반 마련	0.0	8.9	24.8	37.6	28.7	3.86

## 라. 기타 의견

- 지역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주관식 의견을 수합한 결과 '지역 기반 문제점', '홍보', '네트워크', '인력', '지원'으로 의견이 압축됨



- 지역 기반으로서는 지역 맞춤, 컨설팅, 찾아가는, 지역 수요, 인력 등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음. 이는 지역의 현황에 맞는 운영 성장 지원의 필요성을 의미함
- 홍보의 경우 플랫폼, 총괄 시스템, 연계, 홍보지원 등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남. 이는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을 포괄하는 허브의 필요성을 나타냄
- 네트워크 부문에서는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되었는데, 각 기관 간 네트워크뿐 아니라 학교, 민간 간의 연계도 함께 언급됨
- 인력의 경우 정규 인력 지원, 직무역량강화, 전문인력 양성, 인력 공동 활용 등이 정책 제언으로 제안됨
- 정책지원으로는 기존 인프라의 관리와 행정간소화, 사립과 공공 간의 차별 없는 지원 등이 개선점으로 제안됨
- 기타 의견으로는 문화취약계층, 직장인 등 대상에 대한 정책 방안 제안이 있음

〈표 3-21〉 문화기반시설 관계자 설문 의견 종합

대분류	중분류	주요 내용		
지역 기반 문제점	지역 간 격차 해소	찾아가는 프로그램 진행 지원		
		군/면 단위 지원		
		지역 간 실태 파악		
		소외지역에 대한 대안 마련		
		문화기반시설 수 차이 파악		
		지역 벤치마킹 및 컨설팅 실시		
		기관 실무자 및 전문인력 간 협의		
		접근성 취약 시설 대상 접근성 향상을 통한 관람객 유치 지원		
	지역기반 프로그램 개발	지역기반 문화 콘텐츠 개발		
		지역연계 순회 프로그램 확대		
		지역 기반 인력 활성화 지원		
		지역 특색 발굴 및 반영		
		지역 니즈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활성화		
		시군구 협조를 통한 지역 유적 연계 활성화		
		지역 특색 및 니즈 기반 홍보		
		지역 특색 사전 파악 후 지원사업 실시		
		주민 수요 조사		
		조사연구 활동 및 DB화 작업		
		홍보	홍보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지역 내 시설 및 활용 안내 플랫폼 구축
				지역 내 시설 총괄 시스템 및 운영체계 구축
상위기관 차원의 홍보				
홍보 관련 예산 확충 및 홍보채널 다양화				

대분류	중분류	주요 내용	
		프로그램 신청 및 홍보 플랫폼 구축 지원	
		지속적 홍보 및 지원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필요성 홍보	
네트워크	협력 네트워크 형성	네트워크 형성 지원(인지도, 협업 필요성 논의)	
		지역 내 시설 간 협업 위한 교육	
		지역 내 거점 기반 교류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기관 차원의 협력 의지 강화	
		민간(사립) 시설 간 네트워크 및 협력 구축	
		기관 간 성공 사례 교류	
		실무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교류를 위한 기관차원의 적극적 지원(근무시간 인정)	
		기존 업무에 교류 업무 증가로 인한 부담 완화	
		청소년 대상 학교 연계 네트워크	
		협력을 통한 홍보 활성화	
		인력	인력 지속 확충 및 역량 강화
전문인력 확보 및 지속 활용 방안 확보			
인력 총원 및 직무역량강화 교육 확대			
인력 관련 지원금 예산 분배			
인건비 확충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인적 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분야별 전문가 도입			
지역 간 인력 교류	지역 내/지역 간 전문 인력 공유		
	전문인력 공동운영		
	전문 인력 구성 및 활용 관련 기관 협력 및 재정적 지원		
	지원		기존 인프라 관리 (작은 도서관)
			문화 활성화 센터 확충
			주민 대상 자유로운 이용 환경 조성
다양한 인프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정보 안내, 프로그램 관리)			
유휴공간 활용 문화기반시설 확충			
노후화 시설 리모델링			
노후화 시설 지속 관리			
예산 및 제도 개선	협력, 운영 및 인력 지원 관련 법적 제도 개선		
	주민 위한 공공 장소 지정 및 활용, 관리		
	행정 간소화		
	지자체 지지 및 협조		
기관 지원 체계화	공공-사립 동등 지원		
	사립문화기반시설 지원 활성화		
	기관 성격에 따른 지원 계획 세분화		
기타	참여 대상 다양화	청년층/직장인 대상 프로그램 활성화(오후/야간/주말)	
		문화취약계층 위한 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강화	

## 제2절 전문가 의견조사

### 1. 의견조사 개요

#### 가. 조사 목적 및 대상

- 전문가 의견조사는 문화기반시설에 관한 지역의 정책 추진 현황과 중앙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목적으로 실시됨
- 지역과 지역문화기반시설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2022년 9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심층인터뷰 형태로 추진하였음

〈표 3-22〉 담당자 의견조사 진행일정 및 내용

회의차수	조사대상자 정보	인터뷰 내용
1차	지역문화진흥원	문화기반시설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 정책 현황 지역 내 프로그램 연계 사례 및 정부 정책 연계 방안
	한국도서관협회	
2차	한국박물관협회	문화기반시설 대상 정부공모 사업 현황 공공-사립 문화기반시설 간 운영 차이 및 정책 방안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3차	前 국립00박물관장	지역 문화기반시설 간 운영 편차 원인 및 정책 방안 문화기반시설 콘텐츠 다양화를 위한 방안 문화기반시설 전문인력 활용 방안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민간 콘텐츠제작사 대표	
4차	문헌정보학과 교수	지역 문화기반시설 운영 현황 및 제도 개선사항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 간 협력 방안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5차	국립생태원 전시교육실	지역 문화기반시설 정책 소관 부서 간 업무 협력 현황 문화기반시설 간 협력방안
	광주시립미술관	
6차	지역문화연구소 교수	지역주민의 문화기반시설 수요 현황 지자체 문화기반시설 정책 현황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 간 협력 방안
	부산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7차	광역문화재단 실장	지역문화협력시스템 구축과 광역지자체 역할 제고 방안 지역문화기반시설 연계협력사업 성과 독려 방안 검토 기반시설 고유 업무 영역 자문
	인문학과 교수	
	민간 컨설팅기업 대표	

## 2. 의견조사 결과

### 가. 지역 문화기반시설 조성 현황

- 지역 문화기반시설은 설립 목적에 맞는 역할 수행이 우선시 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근거하여 학예사, 사서 등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음
- 대부분의 문화기반시설이 이제 복합화가 되어 도서관과 박물관 및 미술관에도 공연장이 있고 문예회관에도 도서관, 전시실 등이 함께 조성되었음. 이는 문화기반시설의 등록기준에 대해 검토해야 함을 의미함
-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등록된 것과 현황이 다른 경우가 많음. 예를들어 ‘공연장’으로 등록 돼 있지만 실제 방문하면 시청각실 수준의 시설임
- 문화기반시설의 양적 증가는 대체로 동의하나 노후화에 대한 조사와 해결 방안은 검토되어야 함 시설 노후화는 곧 이용률 저하와 운영 수요 축소로 이어져 시설이 유휴공간화 될 수 있음

### 나. 지역 간 문화기반시설의 편차

- 공공문화기반시설은 관련 법률과 등록제도 등이 명확해 지자체에서도 전문인력 채용 등을 명확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민간 시설(사립박물관, 미술관 등)의 경우 운영 편차가 크고 실제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파악됨
- 특히 기초자치단체에 등록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경우 관광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 다수이므로 이는 지역민의 문화향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 양적 성장이 지역 문화역량 강화와 무관함
- 문화기반시설의 주민 활용율은 전문인력의 역량과도 관련성이 있음. 인력의 안정성과 관련 교육제공 등이 기초지자체 프로그램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임

#### 다. 전문인력의 활용 및 중앙정부의 역할

- 사서, 학예사 등 타 기반시설에는 기 전문가 상주, 그러나 생활문화센터 등 지역문화진흥법 기반 시설에는 인증 전문가가 없음
-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제도화 하여 전문 직군 화 하거나 민간 시장을 확장하는 정책을 통해 전문인력을 직업분류에 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필요
- 그러나 지역문화전문인력이 기 전문가가 상주한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등에 투입되는 것은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을 것으로 보임
- 사서와 학예사는 이미 고유의 역할 외에도 문화기반시설 내 행정가이자 기획자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설 환경이 바뀌고 있음
- 민간 지역문화전문인력과 용역계약 등의 방식으로 전문성을 협력하는 것이 더욱 기존 사서, 학예사 입장에서는 더욱 업무하하기 편리한 방식으로 느껴질 것임
- 민간과의 협력이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기 힘들다면 사서와 학예사에게 지역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을 교육해주는 방식으로 접근하여 도서관과 미술관 및 박물관의 지역콘텐츠 개발에 도움을 주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 라. 타 시설 간의 협력 체계 마련 방안

- 도서관의 경우 「도서관법」에 근거하여 거점도서관이 지정 돼 있고 이를 중심으로 상호간 협력체계가 잘 구축 돼 있음
- 그러나 도서관과 문예회관, 박물관 및 미술관과 문화원 등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문화기반시설이 협력하려면 허브 역할을 수행할 기관이 필요함
- 특히 지역에서는 시청 등의 문화예술국 등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서 문화재단 등을 통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정 시설이 거점 역할을 하면 소외되는 기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비교적 교통이 좋은 시설에 활용율이 높아지는 등의 단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 마.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 및 유치

-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이용율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일 때는 ‘누가 프로그램에 오는가’임
- 도서관의 경우는 TV등에 노출이 많이 되었던 유명 작가의 강연, 미술관 및 박물관의 경우는 서울 등에서 유행하고 있는 특별전의 지역 순회전, 문예회관도 해외 유수의 대회에서 상을 받은 아티스트나 매체 노출이 잦은 단체 및 연예인 등이 방문할 때 티켓팅이 어려울 정도로 이용률이 높아짐
- 이는 지역에 거주할수록 양질의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반증함
- 문예회관의 경우는 상주단체의 유무가 개관일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 또한 지역의 예술가 및 예술단체가 성장해야 프로그램 개발이 되고,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열려야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타지에서도 좋은 공연을 보기 위해 방문하게 됨
- 특히 문예회관과 박물관 및 미술관은 지역민뿐만 아니라 관계인구, 관광객까지 폭넓게 유치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므로 프로그램의 양적 성장이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필요함

## 제3절 수요분석과 시사점

---

### 1. 지역 및 시설별 현황체계

#### 가. 시설 현황 조사방안 개선

- ‘문화기반시설 총람’이 보고통계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과 숫자로 나타나는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조사하도록 전환함으로써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
- 지역정책연구원 등이 중심이 되어 기초자치단체 기준의 문화기반시설을 조사하여 통계분석하는 것이 보완 방안이 될 수 있는데, 이 때 중앙정부는 조사 가이드라인과 필요성 등을 지자체에 홍보 및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나. 시설 노후화 및 복합화 지속

- 문화기반시설의 양적 증가는 지자체 차원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있으나 노후시설에 대한 가이드는 없어 오래된 시설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시급함
- 전문가 및 문화기반시설 근무자들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시작으로 인구감소가 빠르게 체감되고 있으며 지역문화진흥법 재정(2014년) 이후 문화기반시설의 양적 증가는 체감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음
- 다만 기존의 시설 노후화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고 이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 등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문예회관,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은 문화예술참여보다 문화예술향유에 가까운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지역주민의 참여중심 시설의 양적 증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함
- 예를들어 문예회관의 경우 지자체별 배치기준이 달성되었지만 (2020~2021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문화시설 이용률이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문예회관의 운영 측면을 보면 양적 배치성과만큼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음
  - 지자체별로 문예회관은 있으나, 체육시설로 함께 쓰는 곳이 있는가 하면, 법에 명시된 전문적인 공연 및 전시 복합공간으로서 문예회관으로 보기 어려운 말 그대로 강당 수준인 곳도 적지 않음
  - 조성된 지 20년이 넘는 2000년 이전에 개관된 문예회관은 모두 97개소이며(시 지역 54, 군 지역 20, 구 지역 23), 30년이 넘는 문예회관(1993년 이전 개관)도 45개소(전체 대비 17.2%)에 달함. 특히 이들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중소도시, 군 지역이 대부분임

〈표 3-23〉 문예회관의 연도별 개관 현황

구분	전체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이후
문화예술회관	262	5	24	68	96	6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1 문화기반시설 총람」

〈표 3-24〉 2000년 이전에 건립된 97개소 문예회관의 지역별 현황

	전체	시	군	구
1970~1999년 건립 문예회관	97	54	20	2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1 문화기반시설 총람」

#### 다. 행정지역 경계 중요성 축소

- 문화기반시설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건립 및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객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분포한다고 보기 어려움
- 본 연구에서 전국 문화기반시설 운영담당자를 대상으로 추진한 설문조사 결과 문화기반시설의 이용 범위가 ‘인접하는 시군구까지’로 응답한 비율이 37.6%였으며 ‘원거리 시군구’로 응답한 비율도 15.8%로 나타남



- 이에 반해 ‘거주하는 마을’로 응답한 비율은 8.9%, 거주하는 시군구내로 응답한 비율은 36.6%로 실제 거주지 이외의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더 높을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 특히 행정구역은 다르나 인접지역의 시설 공유는 흔한 사례이며 문예회관의 경우 인접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의 유입 비율이 높은 시설임
- 또한 몇몇 문화기반시설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아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도 있으며 접근성에 따라 관계인구의 유입율이 더 높음
- 시설마다 어떠한 이용자를 주 타깃으로 하는가에 따라 해당 시설이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목적성이 있는 지역의 문화기반시설을 포괄적으로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지역 내 시설 간 교류를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반면 문화기반시설의 이용 타깃과 운영 목적이 다르더라도 이용자 층 확대를 위해 홍보 방식의 다양화와 관련 플랫폼 공동 구축 및 활용에 대한 필요성은 동일함
- 이는 지역의 경계와 무관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사안임

## 2. 운영 기반 및 관련 제도

### 가. 운영 프로그램 질적 제고

- 본 연구에서 실시한 문화기반시설 담당자 설문조사에서 ‘문화기반시설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프로그램의 흥미 있는 내용’이었음
  - 본 연구에서 전국 문화기반시설 운영담당자를 대상으로 추진한 설문조사 결과 문화기반시설 프로그램 선택 기준 1순위가 ‘프로그램의 흥미 있는 내용’이 68.3%로 압도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

- 또한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지역에서도 문화기반시설의 이용을 향상의 가장 큰 요소는 양질의 프로그램과 유명 작가 및 작품의 유무라고 지적함
- 문화기반시설에 고품질 프로그램을 유입하기 위해 기획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 좋은 프로그램을 지역 간 교류하여 개최하는 협력 방식, 지역 고유 콘텐츠의 개발로 관계인구 등 다양한 이용객 유치 등을 검토해야 함

## 나. 인력 교육 및 정보체계

- 본 연구에서 전국 문화기반시설 운영담당자를 대상으로 추진한 설문조사 결과 ‘우리지역 문화기반시설에서 활동하는 전문 인력들의 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항목에 동의율(그렇다+매우그렇다)은 52.5%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다만 본 설문 대상자가 문화기반시설에 근무하는 이들이며 해당 문항이 자체평가 항목으로 인지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우리지역’으로 질문 문항의 범위가 넓었으며, 응답자 자신이 지역문화기반시설 이용자로서 인지하여 응답하는 항목인 점도 감안하여야 함. 즉, 응답 대상자가 한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전문 인력의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분석할 수 있음
- 그러나 동 설문조사에서 향후 문화기반시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중요도 중 ‘운영인력 전문 교육’의 중요성은 4.47점(5점 만점)으로 높게 나타나 전문 인력의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의 필요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대한 응답자의 세부 의견은 개방형 문항에서 상세하게 드러났는데, ‘정규 인력지원’, ‘직무역량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 기존의 전문인력을 세분화하여 역할별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한편 본 연구에서 전국 문화기반시설 운영담당자를 대상으로 추진한 설문조사 결과 문화기반시설의 이용 어려움의 원인 중 가장 큰 것으로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알지 못해서(49.5%)’로 나타남
  - 이는 2순위로 응답률이 높았던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19.8%)’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응답률임

- 또한 향후 문화기반시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추진 내역 중 ‘시설과 행사에 대한 홍보 확대’가 5점 만점 중 4.47점으로 중요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 기반시설의 정보제공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함
- 이러한 설문 결과는 전문인력의 역할에서 홍보 부문을 수행하는 것이 취약하며 문화기반시설 근무자들은 정보체계를 갖추므로 인해 이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을 피력하는 것으로 풀이됨

#### 다. 수도권 비수도권 간 정보 격차

- 지역 문화기반시설 담당자들은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와의 교류 혹은 시설 담당자와의 협력을 통해 양질의 프로그램 구상 및 유치를 원했음
  - 본 연구에서 전국 문화기반시설 운영담당자를 대상으로 추진한 설문조사 결과 지역 간 문화기반시설 차이 중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47.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는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도시-농촌지역 간 격차(22.8%)’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비율임
- 전문가 인터뷰에서도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이용률이 서울 및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낮다고 체감하는 이유를 초빙할 수 있는 인력의 풀이 좁고 양질의 기획을 추진하더라도 협업할 수 있는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고 지적함
- 이는 거리의 문제가 아닌, 수도권에서 접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에 비하여 비수도권은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을 의미함
  - 전문가들은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유명 강사와의 연락망을 구축하거나 양질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그룹 간의 협업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시설운영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사례가 있음을 밝힘. 또한 강연자, 예술가들이 활동권역을 수도권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정보가 없음을 지적함
  - 사례로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의 경우 강사 사례비가 지역 내 기획 프로그램보다 상회하는 수준이라 지역에서도 수도권 강사를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유명강사의 초빙으로 프로그램 이용객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음

- 동 설문문의 응답자들은 향후 문화기반시설 간 협업 증진 관련 중요도에서 '인력 교류 및 협력 지원(4.11점/5점)'을 인프라 관련 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음
- 또한 개방형 의견조사에서 문화기반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벤치마킹 및 컨설팅 실시', '소외지역에 대한 대안 마련', '지역연계 순회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안, 이를 수도권과 비수도권 기반시설의 정보 격차를 줄이는 방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3. 현장 기반 정책추진 방안 현행화

#### 가. 지역 내 협력 허브 부재

- 지역 내에 있는 시설 간 네트워크는 타 지역 간 네트워크에 비해 추진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교류 및 네트워크는 전반적으로 많지 않음
  - 본 연구에서 전국 문화기반시설 운영담당자를 대상으로 추진한 설문조사 결과 지역 내 위치한 다른 문화기반시설과 '가끔 만나서 교류하고 있다'는 응답이 52.5%, '협력·교류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21.8%로 나타남. 이는 실질적으로 교류 현황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과반이 넘는 것이며, 교류현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17.8%)보다 부정적 응답(29.7%)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 이에 대한 세부 인터뷰 결과 실제 현장에서 상호간 교류 및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이 드러남
- 전문가들은 시설 간에 역할이 상이하고 각 기관의 전문 인력들은 협업의 목적과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고 지적함. 또한 협업을 수행한 사례에서도 예산구조 및 소관 정책부서 등이 달라 실제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험은 낮았음
- 협력을 하는 경우는 유사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공유, 지자체 정책 대응을 위한 자문 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남

- 같은 지역 내 타 시설 간의 협력은 지방정부의 소관 부처가 협력망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기 마련이 가능하며 이후는 전문인력 간의 교류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고도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전문가들은 실제 교류 협력의 목적을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의 활성화’임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지방정부 내에 관련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전문인력에게는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업무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함

#### 나. 지역 특색을 반영한 지원사업

- 문화기반시설 운영 담당자들은 지역 기반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개방형 의견을 통해 다수 언급함
- 주요 제안으로 ‘지역기반 문화 콘텐츠 개발’, ‘지역특색 발굴 및 반영’, ‘지역 니스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활성화’, ‘시군구 협조를 통한 지역 유적 연계 활성화’ 등이 있었으며, 이들 제안의 공통점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었음
- 전문가들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문화기반시설에서 참여형으로 추진될 것인지, 향유형으로 제공할 것인지에 따라 정책 방향이 달라져야한다고 지적함
- 참여형 사업은 지역 콘텐츠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것이 참여율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향유의 경우 지역민이 지역의 콘텐츠를 관람하기 위해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함
- 즉, 지역자원에 대한 참여형 사업을 통해 지역콘텐츠 개발을 지역민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들은 지역 간 연계를 통해 타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때문에 참여형 사업 프로그램 개발, 모델링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기존 공모사업 등에 역량 및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거나 관련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부족한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다. 타 시설 간 교류 필요

- 문화기반시설 담당자들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과 교류를 원했음
- 다만 문화기반시설의 운영 형태(공공, 민간, 위탁 등)에 따라 원하는 교류 형태가 달랐는데, 직접 기획을 위한 교육중심의 교류를 원하는 담당자와 이미 기획되어 포맷화 된 프로그램을 서로 교류하는 방식의 협력을 원하는 담당자 등으로 나뉘었음
- 본 연구에서 전국 문화기반시설 운영담당자를 대상으로 추진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향후 문화기반시설 간 협력 증진 내역 중 '관종별 기관들의 연계 체계 강화(4.13 점/5점만점)'가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남
- 또한 현재 교류가 미흡한 이유가 부서 및 시설 간 업무 칸막이 때문이라는 점을 다수 지적하였고, 대안으로 '실무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의 필요성이 언급됨
  - 이는 기존 시, 도 등의 행정담당자 간의 협력체계가 아닌, 시설 내 전문인력(사서, 학예사, 지역문화전문인력 등) 간의 네트워크를 의미함
- 이러한 결과는 현장에서 타 시설 간의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목적과 방법, 연계조직으로서 역할을 할 담당이 없어 실현한계가 있었음을 시사함

지역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

제4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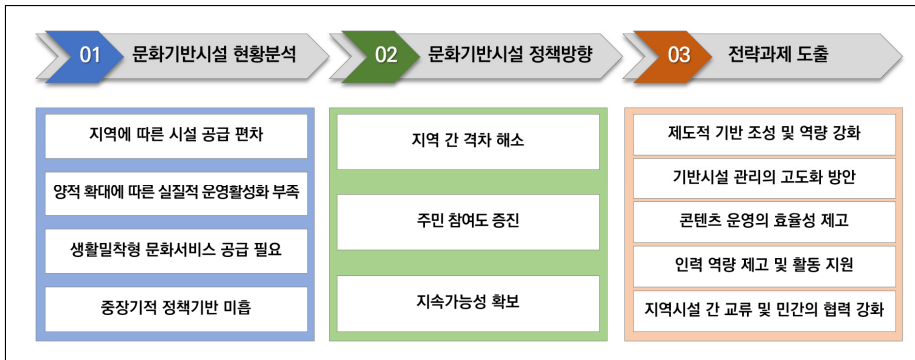
##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방안





## 제1절 기본방향

- 본 장에서는 지역 문화기반시설 정책의 실효성 있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기본방향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세부전략과제를 제시해보고자 함
- 앞에서 문화기반시설들의 공급실태 및 운영현황을 분석하였고,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운영의 개선 및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포괄적인 현황분석을 토대로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정책방향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 『주민 참여도 증진』, 『지속가능성 확보』를 선정하였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제도적 측면, 기반시설 측면, 콘텐츠 측면, 인적 측면, 교류협력 측면을 모색하고자 함



## 제2절 정책방향 설정

### 1. 지역 간 격차해소

#### 가. 지역문화시설의 현황파악을 통해 시설이용의 질적 형평성 제고

- 수도권, 대도시, 중소도시 등 도시규모와 지역 간 문화공급 격차 실태를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기존 문화 인프라 공급정책의 개선점을 살펴보고자 함
- 지역의 공공문화 시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문화향유의 차이는 지속되고 있기에, 적절한 문화시설의 공간 확충과 함께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시설의 활용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 나. 지역주민들의 실질적 문화향유 기회증대를 위한 구체적 운영방안 모색

- 지역별 생활환경을 기반으로 주민들에게 균등하고 골고루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문화기반시설의 종합적이고 구체적 운영방안 검토 필요
- 문화기반시설의 중심지표로서 지역별 시설 수에 따른 배치기준을 넘어 문화시설 접근성과 운영지표 관련된 내용이 접목되는 정책적 보완이 요구됨

#### 다. 지역 문화향유 플랫폼으로서 문화기반시설 기능 확장

- 문화 환경이 취약한 주민들의 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개별 운영되고 있는 이종기관들이 인접한 지역에서 시설을 공동으로 협력활용하는 방향 모색 필요
- 기관 공간기능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시설의 기능 전환 및 복합화 형태로서 연계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 생태계 플랫폼으로서 역할 제안 필요

## 2. 주민 참여도 증진

### 가. 수요자 중심의 문화시설 운영 효율화 증대가 필요함

- 문화시설 건립 및 공급의 양적확충 단계에서 벗어나 문화콘텐츠 및 운영활성화 기능에 초점을 맞추는 수요자 중심의 문화서비스 효율성 제고가 필요함
-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보다 문화적인 삶을 향유하고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야 함
- 시설운영과 관리 측면에서 전문적인 매개인력의 적극적인 활동과 역할 강화를 통해 지역문화정책 차원에서 깊이 있는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나. 주민맞춤형 지역문화콘텐츠의 활용방안이 강화되어야 함

- 획일적으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보다는 주민의 수요가 반영되고 문화적 욕구를 해소해 줄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개발 및 강화되어야 함
-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성에 맞추어 많은 주민들이 공감하고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관점에서 효과적인 운영 전략이 유도되어야 함
- 관련 경험성과 전문성이 축적된 외부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면서, 민관의 협력체계를 이루어 문화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 제고가 요구됨

### 다. 문화시설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전문인력 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함

- 문화시설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활용하고 직무현장에서 능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음
- 현장중심의 교육 및 직무에 필요한 전문적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구축되고, 이후의 활동이 현장 직무수행과 연계되는 양성 기반이 필요함
- 전문인력의 활동 활성화를 위해 세부분야별 및 대상별 맞춤형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 3. 지속가능성 확보

#### 가. 문화기반시설 관련 통합적 법률과 제도 마련 필요

- 도서관법, 공연법, 박물관·미술관법에서 관련시설에 관한 내용을 일부 다루지만, 문예회관과 생활문화시설 등에 관한 개별 법률이 없는 등 많은 시설이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조성·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 국가와 지자체가 조성·운영해야 하는 문화시설 유형을 제시하고, 주요 문화시설의 설치기준과 운영 등을 법률에 명시될 필요가 있으며, 기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시설 관련한 통합적인 법제 기반 마련이 검토되어야 함

#### 나.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광역지자체 역할에 대한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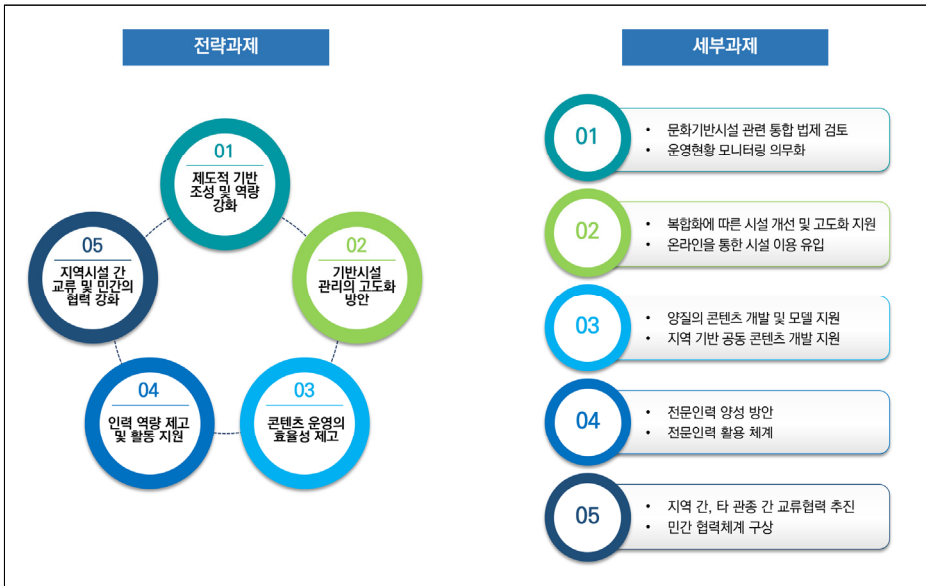
- 문체부 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문체부가 하던 역할을 광역시도가 담당하게 되었으나, 광역시도는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조성·이용을 총괄하는 주체로서 역량과 체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기반시설 사업이 이양되었던 바, 이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광역지자체를 단위로 하는 통합적인 지원체계의 역할, 구체적인 지원 및 시설 운영 하는 방식 그리고 사업 수행방안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다. 문화기반시설 운영 관련 구체적인 개선방향 모색

- 문화기반시설 운영방식에 있어서 지자체가 관련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기에, 이에 대한 방향성 검토가 요구됨
- 문화시설의 개관 시기, 문화시설 내 장비, 문화시설 운영인력의 전문성, 문화시설 프로그램 질적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이른바 문화시설 운영지표가 필요함. 또한 문화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평균치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 장비와 프로그램과 인력의 최소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 제3절 세부추진 전략과제

-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공간적 영역, 콘텐츠 영역, 인적 영역, 제도적 영역에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해보고자 함
- 종합적인 정책방향인 「제도적 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 「기반시설 관리의 고도화 방안」, 「콘텐츠 운영의 효율성 제고」, 「인력 역량 제고 및 활동 지원」, 「지역시설 간 교류 및 민간의 협력강화」를 기준으로 범주화시켜, 이에 따른 구체적 세부방안들을 구성하였음
- 세부 추진과제에는 ‘법제도적 기반조성’, ‘시설관리의 활용모색’,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인력 양성과 활동 개선’, ‘지역시설 간 교류협력’을 실행항목으로 제시하고자 함



# 1. 제도적 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

## 가. 문화기반시설 관련 통합 법제 검토

### 1) 문화기반시설 건립 기준

- 문화기반시설 정책에서 시설공급에 중심을 두었기에, 인구 백만명 당 시설 수가 대표적인 지표임. 핵심적 지표인 지역별 시설 수를 기준으로 지역별 비교하는 기존 정책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인구당 시설 수만 놓고 보면 광역도가 광역시도를 앞서는 바, 인구가 적은 제주와 강원도가 압도적으로 높음. 전남, 전북, 충북, 충남, 경북, 경남이 뒤를 잇고, 세종, 경기, 광주, 서울 등이 뒤를 잇고 있음
  - 시군구를 기준으로 도서관(공공/작은도서관)과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등이 설치된 이유가 크며, 이 수치를 적용하면 문화시설이 필요한 지역은 광역시, 즉 도시임
- 문화시설 설치기준에서 시설 수가 핵심이기에, 2004년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전국문화기반시설 최소기준 수립」 연구를 준용하여 2012년 기준 문체부가 중점 관리한 4대 시설 설치기준에 따르면, 기초군의 문예회관 수만 기준에 미달할 뿐 대부분 기준을 충족함
  - 인구 기준 설치 수와 지역별 배치기준에 따른 설치 결과를 종합하면 도시지역이 도농복합지역에 상대적으로 적은 시설이 조성되었으나, 전체적으로 배치기준을 충족하여 문화시설 설치 정책은 문제가 없다고 분석할 수 있음
-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핵심 기준인 현재의 문화시설 배치기준을 읍면동 생활권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정부 문화정책에서 문화시설 배치기준은 시군구가 일반적인 바, 시설 배치기준도 그렇지만, 실태조사(지역문화실태조사, 문화기반시설총람 등)와 분석 기준, 인력 양성과 같은 사업의 추진 단위도 시군구임
- 문화 활동이 더 생활권으로 확대되고, 지역 중심의 문화자치에서 시군구보다 더 생활 밀착적인 정책 단위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시군구 기준에서 읍면동 기준으로 전환하여야 함. 문화기반시설 정책 역시 읍면동을 기준으로 필요 문화시설을 설정하

고, 배치계획을 수립·실행할 필요가 있음

-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공공체육시설이 반드시 배치되듯이 생활문화시설 1개소 이상을 최소기준을 설정하고, 도서관과 문예회관 등 전문 시설의 경우 접근성 최소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이 하나의 예임<sup>3)</sup>

## 2) 운영지표 현행화

- 문화시설의 개관 시기, 문화시설 내 장비, 문화시설 운영인력의 전문성, 문화시설 프로그램 질적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문화시설 운영지표가 필요함
- 또 다른 문제는 문화시설 내부, 즉 이용 측면에 있는 바, 기존 정책기준이 지자체별 문화시설 수로는 정책성과가 매우 긍정적이지만, 문화시설 이용률이나 활용 형태 등을 보면 정책목표의 전면적인 개편이 요구됨
- 문화시설이 있더라도 적절한 규모와 장비가 갖춰지지 않으면 괜찮은 공연과 전시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유치할 수 없음. 시설이 미흡하면 주민의 문화 활동도 어렵기에, 결국 최소 배치기준을 충족한 현재에 문화시설 정책은 문화시설 내부, 즉 이용 측면에서 새로운 기준이 요구됨
  - 예를 들어, 문화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평균치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 장비와 프로그램과 인력의 최소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 문화시설의 서비스 제공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시설 대보수 또는 개선 대상으로 지정하여 신규 조성 수준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함
  - 개관 시기만 놓고 보면 2000년 이전에 개관한 97개(전체 대비 37%) 문예회관이 우선 대상임. 문화시설 정책이 지방 이양되었더라도,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을 활용하여 낙후된 문화의집 시설 개선에 국비를 지원한 예처럼,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는”(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책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문화기반시설이 최소기준의 운영 수준을 유지하도록 중앙정부가 지원에 나서야 함

3) 국토교통부(2018, 국가 최소기준 설정 연구)는 지역거점 생활인프라 국가 최소기준을 접근성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는데, 문예회관과 전시시설의 경우 차량 20분이 국가 최소기준이다.

### 3) 문화기반시설 관련 상위법 현행화

- 「문화기반시설총람」에 따르면 문화기반시설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지역문화재단이지만, 이 중에서 시설이 아닌 기관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지방문화원과 지역문화재단을 빼면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생활문화센터·문화의집(생활문화시설), 문예회관으로 분류됨
- 도서관은 「도서관법」, 박물관·미술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라는 법적 근거가 있음. 구체적으로 「도서관법」에서는 국립도서관, 지역대표도서관, 공공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는 국립박물관·국립미술관은 설립을 의무화하고 공립 박물관·미술관 조성은 권고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음
- 이에 반해 문예회관과 생활문화시설에 관한 개별 법률은 없음
-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문화예술 공간(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공연장, 문화유산 전시시설 등 모를 포함)’의 설치를 권장하나, 개별법률이 없는 문예회관에 관한 조성·운영 조항은 따로 없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제38조)를 두어 문화예술회관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전부임. 대형건물 등에 문화시설 설치도 권장 사항임(제5조 제2항). 예술의 전당 관련 내용만이 의무조항(제37조)임
-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8조)고 명시되어 있으나, 세부 조항은 의무규정이 아님. 대통령령으로 생활문화시설의 범위를 규정하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이 시설을 조성하고 운영(지원)해야 할 의무는 없음.

### 4) 문화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제도 마련

- 모든 문화시설을 아우르는 통합 법률의 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조성·운영해야 하는 문화시설 유형을 제시하고, 주요 문화시설의 설치기준과 운영 등을 시행령으로 명시하는 법제도를 검토해야 함



- 도서관법, 공연법, 박물관·미술관법에서 관련 시설에 관한 내용을 다루지만, 무수히 많은 시설이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조성·운영되고 있음
- 모든 문화시설 정책이 지역으로 이양된 상황에서 광역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문화시설 조성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 문화시설 조성 및 운영(안전관리 등 포함)에 관한 기본·시행계획(국가와 지자체)을 수립하고, 문화시설의 개방과 이용, 위탁운영, 문화 전문인력 배치(체육시설법(제23조)은 체육지도자 배치) 등 내용이 법률에 명시 필요
- 문화시설 조성·운영계획과 문화 전문인력 배치의 중요성을 파악하여 법제 포함 여부를 함께 검토
  - 문화 전문인력 배치는 시설 활성화 측면에서 필수 사항으로, 체육시설법(제23)에서는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음.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해져 있음(체육시설업 종류와 규모에 따라 최소 배치 인원 기준 제시).
- 통합법률 제정이 어렵다면 기존 법률을 개정하여 법률적 근거가 미약한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공연장을 제외한 문화시설을 다루는 법은 문화예술진흥법이므로, 문예회관의 경우 이 법에 별도 조항을 신설하여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아야 함
  - 시설 설치의 의무와 더불어, 규모와 장비 기준, 문화 전문인력(문화기획, 예술경영, 문화예술교육 등) 배치기준, 운영(안전관리 포함)계획 수립 등이 포함되었으면 하는 조항임
- 생활문화시설 역시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문예회관과 함께 다루는 게 통합적이나, 현재 근거 법률이 지역문화진흥법에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생활문화시설의 경우 건립현황 파악을 위한 제도 기반부터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나. 운영현황 모니터링 의무화

### 1) 광역시도의 역할 강화

- 문화기반시설 조성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기 전에는 광역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적음. 문체부가 광역지자체와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고 문체부 기준에 적합한 계획이면 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을 지원한 뒤 지자체가 조성하고 운영하였음. 이 체계에서 광역시도는 기초시군구와 마찬가지로 문화시설을 설치·이용하려는 자치단체일 뿐임. 그런데 문체부 사업이 이양되면서 문체부가 하던 역할을 광역시도가 담당하게 되었음
- 기초시군구를 대상으로 문화시설 조성 관련 수요를 조사하고, 지원이 적합한지를 따져 예산을 지원하고, 사후 관리 등을 담당해야 함. 문제는 역할은 주어졌으나 이를 수행할 역량과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데 있음. 광역시도에서 수요는 조사하나, 중장기계획이 없이 시군구에서 요청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시군구의 계획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광역지자체단위의 기준과 이를 점검하고 컨설팅할 체계가 현재로서는 없음
- 또한, 한국문예회관연합회와 지역문화진흥원 등이 문체부의 지원으로 조성된 문화기반시설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반면, 광역시도에서는 기초시군구의 문화시설 활성화 지원을 담당할 광역단위의 기관이 없다. 광역문화재단이 있으나, 시군구 문화시설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지 않음
- 일차적인 문제는 광역시도가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조성·이용을 총괄하는 주체로서 역량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기반시설 사업을 이양하였다는 데 있음. 게다가 광역시도가 문화기반시설 활성화의 주체라는 인식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 사업을 이양하였음. 광역시도가 지역 문화기반시설을 총괄하는 주체가 되도록 역량 강화와 체계 구축을 우선 지원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

## 2) 광역지자체의 지원체계 마련 및 법정계획 수립 필요

- 광역시도에서 문화시설 조성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박물관·미술관, 도서관, 공연장 등이 법률로 시설을 규정하나 설치·이용에 관한 계획은 없음. 문예회관, 생활문화시설도 마찬가지임
- 지역문화진흥계획에서 문화시설 조성내용을 담고 있으나, 포괄적 의미에서 시설 확충과 이용 활성화에 그침. 시군구별 유형별 문화시설 설치와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의 욕구와 수요를 수렴하여 단계별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활성화에 필요한 지역 간 연계협력, 지원체계, 전문인력 배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을 문화시설 설치·이용계획에 담아야 함
- 문화시설 설치·이용계획은 무분별한 시설조성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광역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시설 간 연계사업을 추진하게 함으로써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다만 이러한 계획은 법정계획일 때 힘을 얻음
- 문화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고 가정했을 때 광역시도의 문화시설 설치·이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거나,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해야 함
  - 문체부 또한 문화예술진흥법이 규정한 책무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광역시도 계획을 토대로 국가 차원의 문화시설 배치·이용계획을 마련하여야 함
- 광역지자체를 단위로 하는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함
  - 한국문예회관연합회와 지역문화진흥원이 담당하던 시설 활성화 지원을 광역지자체에서도 구상하고 실행하여야 함. 광역문화재단이 담당하는 게 최적이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광역 문예회관을 중심으로 문화시설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광역지자체에서 지원하여 운영하는 방식도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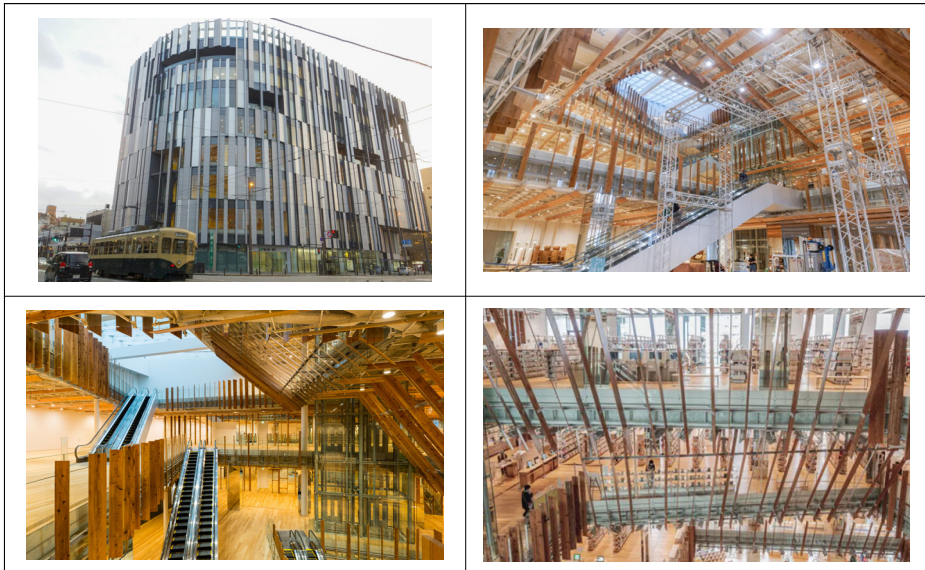
## 2. 기반시설 관리의 고도화 방안

### 가. 복합 문화기반시설 우수 운영 모델 확산

- 지역 문화기반시설 정책에서 형평성을 고려하여 복합화된 공간화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바, 이는 문화적 형평성과 지역민들의 문화적 삶에 대한 최소한의 기반을 확충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사항임에는 분명함
  - 작은 문화시설(작은 도서관, 작은 미술관, 작은 영화관), 생활문화센터 등의 생활문화 관점에서의 시설확충은 문화적 접근성이 낮았던 지역민들의 문화적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반사업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일부 지역의 경우, 문화시설들이 개별 독립적으로 유치 및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를 갖고 있기에, 문화시설 간 복합화를 통해 전형적인 기관 시설 모습에서 벗어나 시민 편의시설로서 융합된 기능을 추진하고 있음
  - 부지선정과 예산의 확보와 같은 설립 과정상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상의 문제 역시 지역시설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기에, 관련 전문 인력과 프로그램 개발 등의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도 필요함
- 이와 함께 양질의 문화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과 규모를 갖춘 관련 시설을 되어야 함. 지역을 대표하는 수준의 문화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 문화기반 시설에 대한 수요 역시 고려해야 할 부분임
- 양적인 정책목표에서 질적인 이용행태로 정책목표가 바뀔 때 문화시설의 기능 전환, 또는 다른 분야와의 통합을 통한 새로운 기능을 접목할 수 있음
- 일본 도야마의 ‘도야마 키라리’는 미술관과 도서관이 한 건물 안에서 마주보는 형태로 배치되어 시민들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시설을 이용함
  - 이러한 배치는 미술관과 도서관이 각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문문화시설로서의 운영을 하면서도, 보다 개방적으로 전문인력 간 교류와 협력이 가능하도록 유도하여 정보 공유 및 공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협력 등이 용이한 환경을 마련함

□ 문화공간의 복합구성사례, 도야마 키라리(TOYAMAキラリ)

- 2018년 도야마시의 중심지인 니시마치(西町)에서 개관. 일본 건축가인 쿠마젠코(隈研吾)의 설계로 독특하고 아름다운 외형의 건물을 신축함
- 기존 장르를 뛰어넘은 복합시설로의 계획으로 도야마제일은행 본점, 도야마시립도서관, 도야마시 유리박물관, 뮤지엄숍, 카페, 회의실이 한 건물 안에 위치한 바, 생활SOC시설의 사례로도 주목받음
  - 유리미술관은 건물의 2층~6층의 일부를, 시립도서관은 3층~5층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음/ 건물의 3층~5층은 미술관과 도서관이 마주보는 형태임
- 도야마현의 주요산업인 유리와 알루미늄 등을 이용한 100장을 패널을 이용하여 다테야마의 봉우리를 표현하여 건물이 예술작품으로서 기능함
- 도야마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는 지역의 랜드마크로 인식되고 있음. 화려한 건물의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의 전시는 도야마를 대표하는 유리 공예가들의 작품과 함께 높은 수준의 공예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문화적 용도 외에 현립미술관과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서의 입지를 갖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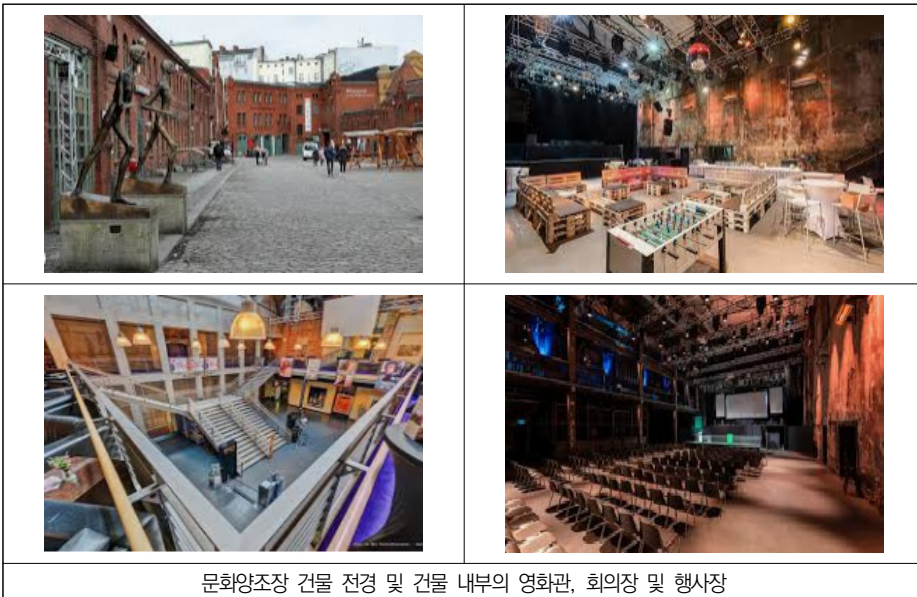


(자료) <https://toyama-glass-art-museum.jp/>

(사진) 「TOYAMAキラリ」～隈研吾が創り出した”知”と”美”の融合体～ 2019.02 | Hiroredev -マチびらき-

## □ 베를린 문화양조장(Kulturbrauerei)의 복합문화 생활공간센터

- 문화양조장은 독일 동베를린 Prenzlauer Berg지구 Kollwitz 소재 다양한 복합문화생활공간의 건물임. 19세기 중엽 산업혁명기 맥주양조장으로 건설, 운영되었으며 1974년부터 기념물로 보호되어 왔으며, 통일이후 현재는 TLG Immobilien에 의해 비영리 문화공간센터 및 상업시설로 혼합 운영되고 있음
- 유희공간 25,000㎡ 규모의 기존 맥주공장터에 복합문화시설로서 계획되어 효율적으로 활용됨. 건물 내에는 (구)동독 일상 뮤지엄, 공연장, 영화관, 고전극장, 독서모임, 미술학교, 갤러리, 스튜디오, 행사이벤트장소, 댄스클럽, 레스토랑, 출판사 등이 위치하여 있음
- 동베를린 지역사회와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는 지역재생의 사례명소로 각광받고 있음
- 양조장 건축물은 산업시대의 옛 웅장한 벽돌 외관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는 현대식으로 리모델링되어서 예술창작공간, 공연, 전시, 영화상영, 학술회의, 문학 낭독회, 음악회 등 문화예술의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1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하는 지역관광자원으로서도 수익성을 창출하고 있음



문화양조장 건물 전경 및 건물 내부의 영화관, 회의장 및 행사장

자료 및 사진 출처 : <https://www.kulturbrauerei.de> || <https://de.wikipedia.org/wiki/Kulturbrauerei>

## 나. 온라인을 통한 시설 이용 유입

- 문화기반시설은 형태는 다르나 최소 1개 이상의 온라인 기반을 활용하고 있음
  - 자체 홈페이지, SNS, 지자체 홈페이지 공동활용 등의 형태임
- 문화기반시설 운영 담당자들은 본 연구의 설문에서 향후 문화기반시설 협력 증진 방안에서 ‘정보시스템 연계 활성화’에 4.13점(5점 만점)을 부여, 1순위로 꼽을 만큼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음
- 국립문화예술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한 선행연구에서도 기반시설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모두 운영중이기에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언급되었고, ‘온라인’이 오프라인 인프라의 보조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온라인 인프라 그 자체로 문화향유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음<sup>4)</sup>을 지적한 바 있음
- 문화기반시설의 온라인 기반은 시설 수요자들을 유입하는 정보제공의 창구이자 관련 자료들을 선행 혹은 이후에 확인할 수 있는 아카이브로서도 역할함
- 또한 문화기반시설 담당자들의 주요 업무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핵심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나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온라인 시설은 단순 정보 공개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또한 민간 정보 플랫폼보다 이용률이 높다고 할 수 없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포털’ 등 정보공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플랫폼이 모든 지역의 문화기반시설의 접근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 담당자들이 이를 활용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온라인 기반이 오프라인 시설의 이용률 향상을 위한 유입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채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 이를 위한 공통의 허브 플랫폼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지역 문화기반시설이 단순 오프라인 인프라로서 지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시설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기반을 활용하여 폭 넓게 이용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활동을 아카이빙하는 역할 수행이 필요함

4) 김면·노수경(2020), 국립문화예술기관 온라인 콘텐츠 기반 구축 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01쪽

### 3. 콘텐츠 운영의 효율성 제고

#### 가. 양질의 콘텐츠 개발 및 모델 지원

##### 1) 기존 프로그램 운영의 질적 수준 및 역량 제고 필요

- 문화시설에서 획일적이고 일방향적인 문화콘텐츠의 제공은 주민참여율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에,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과 시행을 통해 문화시설 이용률을 높이는 정책방안이 요구됨
  - 콘텐츠 기획력 부족, 미흡한 프로그램 수, 다양성의 부족, 홍보체계성 문제, 유사한 강좌구성과 질 낮은 내용 등은 전반적인 시설이용률의 저조로 나타남
- 지역사회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과 양질의 문화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바, 기획 및 개발 단계에서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실질적인 문화접촉기회가 없었거나, 문화적으로 소외된 이들에게 문화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해야 하며, 주민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운영 검토가 필요함
- 문화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시설들은 종합적인 차원에서 전문화되고 특화된 공간으로서 지역주민들이 공연, 전시, 교육, 체험 등 문화서비스를 향유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함

##### 2) 통합된 콘셉트 설정과 기관 특성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들의 통합된 콘셉트를 설정하고, 연계방향에서 각 시설들은 분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미술관은 운영주체도 다르고 운영 방식이 다르기에, 같은 문화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개설하기 보다는 특화된 콘셉트를 설정하고, 공간특성에 따른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함
- 기관의 정체성과 목적에 맞추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이 강화되어야 함
  - 문화기반시설들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도서관의 경우 문학, 박물관의 경우 역사, 미술관의 경우 문화예술, 문예회관의 경우 문화예술, 지방문화원의 경우 역사,



문화의 집은 문학,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에 강점을 두고 있기에, 기관별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이 보다 필요함

- 지역 커뮤니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반시설 네트워크를 구축 활용하여 시설들의 보편적 기능 외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함
  - 다양한 시설들이 프로그램을 개발, 응용함으로써 개별 단위사업으로 그칠 수 있는 행사운영을 지역 내 문화예술의 거시적 지향성에서 실질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나. 수요기반 프로그램의 강화 및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 1) 주민수요에 기반된 문화 프로그램의 발굴

- 생애주기별에 따른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연령대별 콘텐츠 구성을 다양화하여 모든 구성원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함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지방문화원 등 이용하는 시설에서 참여자와 관련하여 세대별로 일정한 차이가 나타나는 바, 프로그램 구성 및 제공에서 특히 청년, 중장년, 노년층을 대상으로 특화하는 시설운영이 요구됨
- 문화시설을 거점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구성과 주민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지역 문화전문가들과 활발한 공동작업을 맺으며, 주민들이 지역문화의 잠재역량을 발전시키는 운영이 되어야 함
  - 지역의 고유문화 및 지역민의 역사가 기반되는 콘텐츠의 발굴은 지역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확립을 넘어서 지역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역할이 될 수 있음
- 주민의 특성과 문화욕구를 파악하여, 문화시설 강좌 이후에 사회 내 다양한 문화 활동을 연계하기 위해서 기관, 단체, 학교 등을 대상으로 능동적인 참여형 아웃리치 프로그램 운영이 검토되어야 함

## 2) 환경변화의 반영 및 선도적인 기획프로그램 제공 필요

- 변화하는 문화수요의 트렌드를 반영하고자, 신규 문화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의 청취와 원하는 프로그램의 제안을 수렴하는 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수집된 의견을 검토 후 실제 프로그램구상에 연결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최신 문화경향과 흐름에 따른 기획프로그램을 지역 주민들에게 소개하는 선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문화시설의 방문도를 높이는 방안이 요구됨
- 본 설문조사결과에서 보이듯, 주민들은 ‘강의교육형’, ‘관람감상형’ 보다는 ‘경험체험형’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바, 주민들이 일상과 긴밀하게 관계하고 능동적으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프로그램의 참여는 단순히 강의 수강에서 머무르지 않고, 지역구성원으로서 주체적인 역할을 맡아 지역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성에 동참할 수 있는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3) 정기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통한 지역시설의 운영 현황파악 필요

- 지역 내 기관들의 프로그램 운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모니터링의 도입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음
  - 현재 일부 기관을 제외한 문화기반시설들의 프로그램 및 전시가 파악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이 필요함. 나아가 생활문화센터 등의 콘텐츠 실태파악이 보완되어서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전체 현황이 분석될 필요가 있음
- 정기적으로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성과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의 질적인 운영제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프로그램 선정과 운영 시 지역사회 내 관련 자문위원들을 선정, 의견수렴과정들을 통해 다양화 및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4. 인력 역량 제고 및 활동 지원

### 가. 전문인력 양성 방안

- 지역에서는 문화시설을 전담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문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특히 문화 인력의 상당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지역에서는 전문 인력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임
-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의 시행 이후, 지역의 문화전담인력을 양성하는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바, 총괄운영기관의 주관 아래 권역별 전담운영을 선정하고 이들과 협력을 통해 입문-지역-통합과정으로 구성
  - 입문과정과 통합과정은 지역문화기획 관련 일반론 중심의 공동교육으로 운영되며, 지역과정은 권역별 특화교육으로 세분화하여 운영되고 있음

- ① 지역문화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개발 및 운영
- ②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다양한 지역문화 일 경험 제공을 통한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실무 역량 강화 및 지역 내 문화 활력 제고
- ③ 교육 및 배치 기관 지역 분배를 통한 균형 있는 인적 자원 개발
- ④ 지역문화전문인력 및 주관기관 간 교류지원 및 관계망 구축을 통한 지역 내 자발적 협력체계 및 기반 형성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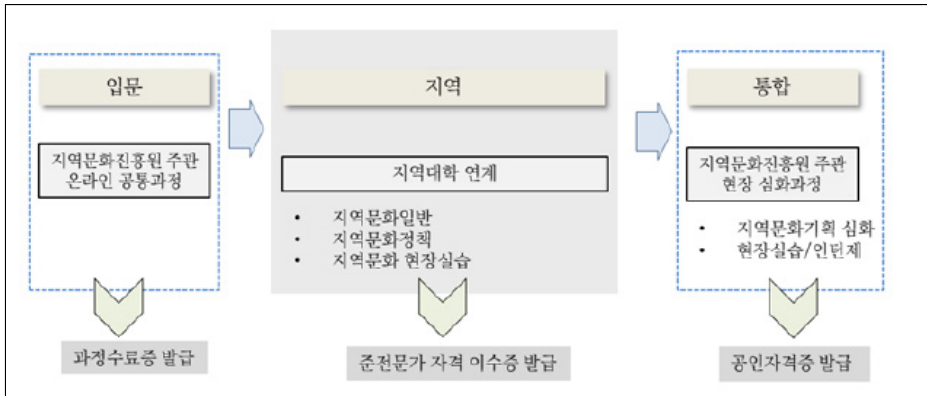
-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배치-재교육의 전 과정을 아우르며 전문 인력으로서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
- 문화 분야에서 전문 인력은 해당 세부 분야에 대한 전문성에 바탕을 둔 전문 인력을 의미하는 것에 비해, ‘지역문화’라는 다소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범주에서 접근하고 있어 실제적인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음
  - 실제로 문화시설에서는 이들을 전문시설을 담당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보조인력 정도의 인식이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역시 문화현장의 전문가들을 초방한 특강 위주의 강의를 주를 이루고 있으며, 현장연계 교육은 현장탐방 정도의 선에서 진행되고 있어 교육과정에서 현장감을 경험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현장 중심의 직무에 필요한 전문적 기술과 업무 지식을 습득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문화시설의 수요를 기반으로 한 전문 인력의 필수 분야 및 교육과정에 대한 정기적인 수요조사가 필요함
  - 업종별, 분야별, 지역별에 따른 인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검토해야 함
- 인력의 지원은 교육과정 자체보다는 교육이후 인력이 일자리와 연계하여 안정적으로 투입,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기에, 전문 인력을 위한 양성기반의 생태계 조성이 필요함
  - 고용 및 일자리 연계를 위해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자격증을 준비하는 등 인증제도가 있어야 함
- 교육 과정을 마친 후에는 전문가가 될 준비가 된 예비 전문 인력이 현장과의 연계를 통한 심층적인 과정을 통해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함

## 나. 전문인력 활용 체계

### 1)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인제도로써 자격제도의 운영을 고려할 수 있는 바, 현재 교육과정 중 지역연계 교육은 지역문화재단, 문화원, 진흥원 등 지역 기관을 통해 운영되고 있음. 운영방식은 지역 유관기관을 통해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교육내용의 획일화와 전문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기도 함
- 이에 지역과정 및 심화과정의 경우, 지역대학의 협력을 통해 전문성의 강화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지역대학 중 지역문화 및 문화기획 관련 전문성을 갖춘 대학들을 공모를 통해 모집하여 선발하고, 이들이 주체성을 갖고 지역특화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임
  - 대학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의 공신력을 높이는 동시에, 대학의 입장에서는 대학 인력들을 문화 인력으로 연계 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너지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임



-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에서 양성된 인력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전문 인력으로서의 모호한 역할이며,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도 과정이 끝나면 거기서 그치고 인력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현장과의 괴리감이 있기에 개선이 요구됨

## 2) 인적 네트워크 및 DB 구축

- 문화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적 자원에 대한 정보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 도서관의 경우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에서 관리되며 사서 연수프로그램의 인력 풀은 공공 및 국가단위에서 취급되고 있으나,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의 정보는 물론, 여타 문화기반시설의 인력정보도 구축되어 있지 않음
- 여러 문화시설에서 채용 시 분야별 전문 인력을 매번 어렵게 찾아야 하는 상황이기 에, 기본적인 인적자원들의 정보공유시스템 기반구축을 통해서 인력의 정보제공 및 수급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현재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는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여 30만 여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등록되어 있음. 중앙정부는 문화예술 영역의 인적정보 및 경력관리를 위한 전국적 DB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에서 다양한 영역과 연계하여 문화 인력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체계가 고려되어야 함
- 지자체에서 인적자원의 정보 불균형 때문에 기관과 시설들의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기에 분야별, 지역별, 경력별 및 연령별 상황에 따른 인력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특히, 지역문화 시설인력들의 정보축적을 통해 필요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인력수급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지자체 상황에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기에, 우선 광역지자체 단위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인력풀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현장 관계자들과 교류하여 지역 내 사업에 연결하도록 관리해야 함
  -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전문가들의 인적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전문 인력이 기관들과 매치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함
- 종합적 차원의 인적자원 관리 활용에 있어서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한 법적 검토를 통해 개인정보의 접근권한과 정보의 활용범위에 대해 정보의 공개를 일정부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3)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역할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 기존 문화 인력들이 박물관·미술관, 도서관 등 특화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전문인력으로서 문화시설에서 활동하고 있다면, 지역문화 전문인력군의 경우, 지역문화 또는 문화기획 전문가라는 타이틀로 활동하게 되고 주로 생활문화센터 등 지역공공기관에서 단기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음
  - 현장실무가 강조되는 문화시설의 특성 상 신규인력이 실무현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현재의 교육과정 역시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고 계획되었다고 보여 짐. 다만, 교육의 실효성과 관련된 제도권 차원의 공인된 자격 부여를 통해 이들이 지역 내에서 보다 영향력 있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 전문 인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다양한 업무영역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이 중요함. 이는 문화기반시설 운영의 내실화로 직결될 수 있음
- 인력배치에 대한 법률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의무배치 혹은 일자리 연계를 권고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 수료 후 지속적인 근무활동으로 연계되는 과정이 구축될 수 있어야 함

- 기존의 문화시설 전문 인력들이 문화기반영역에 종사하는 문화전문인력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이들 인력군은 지역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문화시설의 지역전문가로서 그 성격을 특화시킬 필요가 있음. 이들의 역할이 구분되고, 특화될 때 지역 내에서 실제적인 이들의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을 것임

## 5. 지역시설 간 교류 및 민간의 협력 강화

### 가. 지역 간, 타 관종 간 교류협력 추진

#### 1) 행정구역 중심에서 생활권 중심의 유기적 활용

- 문화시설은 주변 행정구역과의 인접성을 고려하지 않기에, 근거리에 시설건립에 대한 중복투자가 유발되는 부작용이 있음. 따라서 건립만을 우선하기 보다는 인근지역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역 간 문화시설을 공동 이용하는 정책이 고려되어야 함
- 시설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인근 주민들과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지역커뮤니티 공용시설로 장점을 가질 수 있음.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지역 간 문화시설들의 상호연계이용을 위해서는 공간 활용범위나 개방시간 등을 조율되는 조건하에서 주민들의 편의성이 효과적으로 증대될 수 있음
- 문화시설을 전시장, 공연장, 도서 공간, 교육장, 회의실 및 멀티미디어실 등 주민들의 다목적공간으로 공동 연계 활용함으로써, 주민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음
  - 특히, 박물관, 미술관 및 문예회관 등 규모가 큰 문화시설들은 방문객이 상대적으로 적고 지자체가 전문적인 운영이 쉽지 않기에, 이들을 지역문화의 거점 공간으로 인접지역과의 공동이용이 필요함
- 실제 생활권 내 문화시설을 공동 이용하는 주민들은 문화향수 기회와 예술창작활동의 장을 취할 수 있고 그와 함께 지역사회 간 협력관계 증진이 가능함

## 2) 기반시설 공간협력의 제도적 제고방안

- 문화시설들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업무활동에서 큰 차이 점을 보이고 있기에, 기관들을 매개하여 협력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할 ‘기반시설 협력위원회’(가칭)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시설기반 공간협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효율적인 연계협력을 위해 문제 점을 조율하며 세부적인 부분에서 이해관계의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음
- 우선적으로 협력마인드가 형성되면서 단계적 자원협력을 확대하면서, 선순환구조의 기반위에서 기관 사이의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가는 추진이 필요
  - 문화기반시설 간 협력 증진 관련 설문조사에 나타난 중요도는 ‘정보시스템 연계 활성화’(4.13), ‘인력교류 협력’(4.11), ‘인접지역 문화시설 공동이용’(3.94), ‘기관들 간 물적 교류 협력 장려’(3.90), ‘행정 사무협업’(3.72)순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전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함
- 공연장, 전시 공간, 강의실 등의 시설 공간을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관시설 중 공간수요를 잘 조정하면 시설건립에 의존하지 않고 기관 간 공간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음
  - 지역에서 기관시설 간 공간 공유관련 법률이 전무하기에,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관련 조례를 마련하여 시설 간 협력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지역문화시설마다 관련된 행정부서가 다르고 관련 부서의 의사결정에 의해 시설운영자가 영향을 받게 됨. 따라서 공간의 공유를 추진할 때는 기관의 실무담당자들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의 행정 내 관련부서 간 업무협업도 함께 협조되어야 시설운영의 원활한 교류가 가능할 수 있음
- 협력 사례로 ‘광주지역문화예술기관 협의체’는 2013년부터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단 등 16개 문화예술기관들이 지역의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음



[지역 협력사례] 광주지역문화예술기관 협의체

- 광주문화예술기관 협의체는 국립광주박물관,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문화재단 등 지역 16개 문화예술기관이 모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되고 있음
- 지역을 중심으로 자발성을 띤 협력적 네트워크의 유형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및 유관 기관들과의 광의의 협력을 실현 하는 체제(플랫폼)이라 할 수 있음
- 주요공동사업으로 공동출판물 발간, 공동 세미나 및 포럼, 역량강화 교육 등이 있고, 개별 협력사업으로 회원관 가운데 유관 기관들이 개별적 협력을 통해 사업을 발굴하는 경우로 광주문화예술기관 협의체를 플랫폼 삼아 추진하는 경우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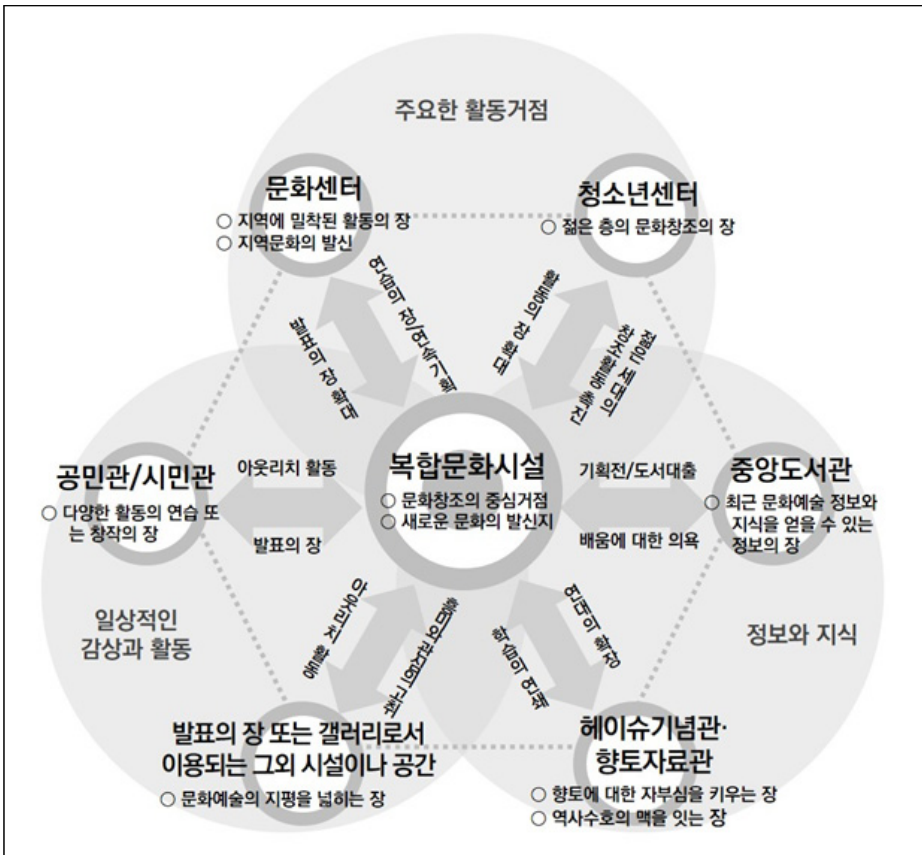
광주문화기관협의회 2022 상반기 대표자회의(자료: 광주문화재단)

### 3) 시설 간 협력 체계 구상

- 지역을 기반으로 한 시설 간 협력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에서 연계하여 공동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음
- 행정 구분이 아닌 지역성에 근거한 지역연계 프로그램의 개발은 문화를 통한 지역 간 연대를 가능하게 하며, 지역 프로그램의 주제 다양성, 전문성, 문화자원의 연계 가능성 등을 확장하며 지역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가져올 수 있음
- 문화시설의 입지에 따른 현황을 분석하면, 시설별로 접근성에 차이가 큰 점을 확인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박물관·미술관, 공연장 등에 비해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 접근성이 월등히 우수한 편임
- 국공립 문화시설의 경우, 지역단위에서의 접근편의성은 더욱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 접근성이 높은 지역생활문화센터, 지역도서관등과 연계를 통해 지역민의 수준 높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전문성과 관련 기획능력을 갖춘 국공립문화시설에서 전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를 신청 받은 지역 내 기반시설들에 협력 대여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기획하도록 함
  -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경우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국공립시설에서는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포괄적인 문화적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음

- (국공립기관의 지역기관 지원사례) 국립민속박물관의 경우, 주관기관으로서 지역협력망 사업을 통해 지역박물관의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영세하거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지역기관의 입장에서 상위기관의 지원을 통해 실제적인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동시에, 전문인력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함
- (학교교육과의 연계방안) 일본은 최근 개정박물관법(2022)을 통해 지역내박물관 등의 문화시설과 학교연계교육을 강화하는 안을 발표함. 초중등교과과정과의 연계를 통해 생생한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지역청소년들이 지역 내 문화시설을 보다 친근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함

[그림 4-1] 일본 도카이시 문화창조거점 구성도



\*출처 : 일본 도카이시 문화창조거점 자료 (6.pdf.pdf(city.tokai.aichi.jp)) 연구진 번역

- (연계이용권 발행)지역 내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회원권을 발행하여 다양한 형태의 문화시설이용의 편의성을 높여서, 시민들의 교류를 기반으로하는 시설 간 문화교류의 장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
- (복합문화거점의 설치 및 연계)지역 내 다양한 문화시설들을 연계하여 이들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기타문화시설들이 각자 가진 전문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로 결합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도록 함

#### 나. 민간 협력체계 구상

- 지역시설들의 경우, 지역성에 기반하여 차별화된 지역프로그램의 운영과 함께 지역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경험의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것이 요구됨
- 다양한 주제와 수준을 고려한 개방된 프로그램의 개발은 지역민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강화하고, 지역에서의 창의적인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로 연결 될 수 있음
-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지역 내외부의 문화 전문 인력과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가능함. 이를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의 지역 내-외부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사례) 일본 오노미치 자유대학의 사례를 들 수 있는 바, 기존 지역의 범주와 개념을 넘어선 지역으로 '연결'된 협력 프로그램의 개발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지역민과 외부인 간 자연스러운 협력과 소통이 유발되며 지역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전문가, 지역민-외지인, 외지인-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의 형성을 가능하게 함
  - 오노미치자유대학의 경우, 오노미치시가 공모사업을 통해 조성한 오노미치쉐어 공간을 거점으로 운영되고 있음.
  - 프로그램 자체를 공공과 민간의 직접 협력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공간의 조성과정과 해당 공간에 대한 민간위탁,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소통 등을 기반으로 공간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디스커버링크 세토우치가 주축이 되어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민관협력 운영의

사례로 볼 수 있음.

- 오노미치자유대학과 같은 유형의 학습공동체를 커뮤니티대학 또는 소셜계대학으로 지칭함. 행정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기존의 시민대학과는 차별화된 유형으로 보고 있음.
- 기존 시민대학이 지적호기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배움의 장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커뮤니티대학의 경우 “모이고, 교류하고, 행동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짐

일본 오노미치시의 오노미치 자유대학(尾道自由大学) 협력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9년 ‘크게 배우고 자유롭게 생각한다’는 모토아래 도쿄 아오야마에서 문을 연 자유대학과 협력하여 시민대학을 운영하고있음.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주)디스커버링크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시민 스스로 배워가는 시설임</li> <li>■ 오노미치시 내 공유공간시설인 오노미치쉐어에 거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개방된 형태로 지역 내외부인의 참여가 가능한 형태로 지역기반-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li> <li>■ 지역사업을 운영하는 민간단체인 (주)디스커버링크에서 기획운영하며, 지역민뿐만 아니라 외부인에게도 열린 형태의 지역기반 문화대학으로서 다양한 교육 및 강좌 등을 운영하고 있음</li> </ul>	
	
오노미치 자유대학 모습	오노미치 자유대학 거점 오노미치쉐어 전경
홈페이지: <a href="https://onomichi-freedom-univ.com">https://onomichi-freedom-univ.com</a>	

지역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

제5장

결론 및 제언



## 제1절 결론

---

- 문화기반시설이 양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나, 문화향유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기에 문화시설의 내실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방향이 요구되고 있는 바, 시설 현황과 운영체계를 살피고 관계자 및 전문가 FGI를 바탕으로 문화시설의 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우선, 문화시설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자 시설의 조성실태와 운영관련 격차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구체적인 운영사업 및 지원정책을 살펴보았음
  -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량의 보고통계를 통해 문화기반, 문화콘텐츠, 문화지원·운영, 문화향유·소비 4개 분류에서 문화시설의 개수, 면적, 프로그램 수, 운영일 수, 직원 수, 운영예산, 이용자 수 등 9개 항목의 분석을 실시함
  -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현황을 살피고자 문화기반시설 확충 지원 정책, 운영 지원 사업 및 전문 인력 지원 정책을 분석하였음
- 문화기반시설 운영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자 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용실태를 분석하였고, 전문가문회의를 거쳐 시설의 공간실태와 정책발전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함
  - 전국 문화시설 근무자 101명을 대상으로 관련 현황, 인식조사 및 향후 시설 활성화 방향 문항에 대해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전문가 17명을 대상으로 의견조사 실시하였으며, 기관담당자의 설문조사 결과, 교류사업 추진의견 및 향후 정책발전에 대한 검토의견을 수집함
- 문화기반시설의 운영 측면에서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차원에서 활용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정보와 의견을 수집분석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문화기반시설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의 중요도를 분석하고 종합적인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이러한 포괄적인 현황분석을 토대로 문화기반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하였음
- 문화기반시설의 중심지표로서 지역별 시설 수에 따른 배치기준을 넘어 문화시설 접근성과 운영지표 관련된 내용이 접목되는 정책적 보완이 요구됨
  - 문화시설의 개관 시기, 문화시설 내 장비, 문화시설 운영인력의 전문성, 문화시설 프로그램 질적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운영지표가 필요함
- 문화 환경이 취약한 주민들의 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개별 운영되고 있는 이중기관들이 인접한 지역에서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향을 모색 필요
  - 기관 공간기능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시설의 기능 전환 및 복합화 형태로서 연계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 생태계 플랫폼으로서 역할이 필요
- 문화프로그램의 운영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수요자 중심의 문화서비스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바,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문화적인 삶을 향유하고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야 함
- 경험성과 전문성이 축적된 외부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면서, 민관의 협력체계를 이루어 문화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 제고가 요구되며, 현장중심의 교육 및 직무에 필요한 전문적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구축되고 교육이후의 활동이 현장 직무수행과 연계되는 양성 기반이 필요함
- 문화기반시설 관련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태이기에,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시설 관련한 통합적인 법제 기반 마련이 검토되어야 함
  - 국가와 지자체가 조성운영해야 하는 문화시설 유형을 제시하고, 주요 문화시설의 설치기준과 운영 등을 법률에 명시될 필요가 있음
- 문체부 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문체부가 하던 역할을 광역시도가 담당하게 되었으나, 광역시도는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조성과 이용을 총괄하는 주체로서 역량과 체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기반시설 사업이 이양되었던 바, 이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광역지자체를 단위로 하는 통합적인 지원체계의 역할, 구체적인 지원 및 시설 운영하는 방식 그리고 사업 수행방안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제2절 정책적 제언

---

-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도적 기반조성 및 역량 강화」, 「기반시설 관리의 고도화 방안」, 「콘텐츠 운영의 효율성 제고」, 「인적 역량 제고 및 활동지원」, 「지역시설의 교류 및 민간 협력강화」를 제시하였고, 실행을 위한 세부방안들을 구성하였음
- 「제도적 기반 조성 및 역량강화」에서는 문화기반시설 관련 통합적 법제 기반 마련에 대한 검토를 제안했고, 광역자치단체의 역할확대와 운영현황 모니터링의 의무화를 위한 대책방안들을 제시했음
- 「기반시설 관리의 고도화 방안」에서는 우선 현 문화시설 공간의 기능전환 및 복합화 방안과 함께 리모델링 사업 및 SOC 등록제 활용을 통한 운영안정화 지원 등 제고방안을 모색해보았음
- 「콘텐츠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서는 문화프로그램의 운영실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공급방안, 지역 내 교류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제시하며 콘텐츠 측면의 방안을 다루었음
- 「인적 역량 제고 및 활동지원」에서는 문화시설의 운영을 전담하는 전문인력 관련 구체적인 제고방안을 제시하였음. 현장중심 인력양성 기반 강화, 전문인력 교육시스템 개선, 인력 네트워크를 내용으로 구성하였음
- 「지역시설 간 교류 및 민간의 협력 강화」에서는 지역 간, 타 관중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지역 내 민간 협력체계를 구상하는 구체적인 제고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 연구는 문화기반시설을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방안들을 제시하였음



---

## 참고문헌

### [문헌]

- 구형수(2018), 『생활인프라 기준도입 및 활용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 김광용(2021), 『문화예술 기반시설의 지역 간 격차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대진대학교(박사학위논문)
- 김면(2021),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운영 활성화 방향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민경·이성신(2014), 기록관,도서관,박물관의 공간 협력방안,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7권1호)
- 김현호(2012), 『지역 공공문화기반시설 운영실태 분석 및 평가연구』, 문화체육부
-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0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21),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1 문화예술 정책백서」
-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년도 국정과제 추진실적”
- 박태선·이미영·한우석(2014),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방안연구』, 국토연구원
- 백령, 김명준 외(2012), 『2012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실태조사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서우석 외(2017), 『2017 지역문화예술교육 현황 조사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성은영 외(2021),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SOC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양지연(2016), 문화기반시설 공공지원의 근거와 방향에 대한 재성찰, 한국예술경영학회, 『예술경영연구』제40집, pp.233-256.
- 양혜원 외(2015), 『지역특성을 고려한 문화기반시설 배치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오례지나 외(2019), 『2019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오용준·임준홍·임형반·김형철(2016), 『충청남도 생활인프라 구축실태 및 정책과제』, 충

남연구원

- 이병민(2021),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을 위한 기준 설정 및 정책 모델화, 『대한지리학회지』56권 6호
- 이순자(2014), 『지역행복생활권 단위 문화서비스의 효과적 공급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이원태(2004), 『전국문화기반시설 최소기준수립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임학순 외(2018), 『문화예술교육 인력플랫폼 구축 타당성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장세길·육수현(2021), 문화향유중심에서 사회혁신형으로: 전라북도 사례로 본 문화자치역량 격차와 문화공동체 육성 방향, 『문화정책논총』35(1)
- 정광렬(2016),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최영실(2012), 『기록관,도서관,박물관의 기능 융합에 의거한 라키비움 공간 기획 연구』, 명지대(박사학위논문)
- 추미경 외(2018), 『2018 지역문화인력 지원사업 성과분석 연구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원

## [온라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https://www.libraryonroad.kr/>
- 독일베를린 문화양조장 홈페이지 <https://www.kulturbrauerei.de>
- 위키백과 (문화양조장) <https://de.wikipedia.org/wiki/Kulturbrauerei>
-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mcst.go.kr>
- 지역문화진흥원 <http://www.rcda.or.kr/>
- 한국도서관협회 <https://www.kla.kr/kla/>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https://www.kpipa.or.kr/main/main.do>
- (사)한국박물관협회 <https://museum.or.kr/2014/>
-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https://www.artmuseums.or.kr/>
- 한국문예회관연합회 <https://m.kocaca.or.kr/intro>
- 일본 도야마 키라리 홈페이지 <https://toyama-glass-art-museum.jp/>
- 일본 도카이시 홈페이지 <http://city.tokai.aichi.jp>
- 일본 오노미치자유대학 홈페이지 <https://onomichi-freedom-univ.com/>

---

# ABSTRACT

## **Promoting the Cultural Facilities for the Communities Development**

Myun Kim, SooKyoung Nho, Suhee Chung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cultural facilities, it is required to implement a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policy to tackle ongoing imbalance in cultural enjoyment and to improve the facilities.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the operating system of the facilities and to explore the direction for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of community-based cultural facilities based on the survey of those in the industry and expert FGIs.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it was found that while the number of community-based cultural facilities had increased, they have also become outdated.

In addition, differences in operations and residents' satisfaction and consumption were found between the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improve detailed investigation techniques for local facilities and to develop the policy outside of administrative districts. As for community cultural facilities, it is important to improve the quality of operating programs, provide more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professional personnel, and develop a process for cooperation between local facilities.

Accordingly, this study established five strategic and 10 detailed tasks.

The five strategic tasks include: (1) establishment of an institutional foundation and capacity building; (2) measures to advance infrastructure management; (3) enhancement of efficiency in content operation; (4) improvement of manpower capacity and support for activities; and (5) promotion of interregional exchanges and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Based on these, the following detailed tasks were developed: (1) review of integrated legislation on cultural facilities; (2) mandatory monitoring of operation status; (3) support for facility improvement and upgrades in response to complexation; (4) increase of facility use through online services; (5) development of and support for high-quality content and models; (6)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community-based shared cultural facilities; (7) plans for nurturing professional manpower; (8) development of a system for utilizing professional manpower; (9) promotion of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different regions and organizational types; and (10) development of plans for a private cooperation system.

It is time to plan how to enhance the locality while preserving the unique roles and characteristics of community-based cultural facilit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establish a common strategy and share the responsibility to promote policies.

### **Keywords**

Cultural Facilities, Local Cultural Infrastructure, Cultural Disparity

지역문화기반시설 활성화 방향 연구

부록

의견조사지 양식





## 지역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의견방안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 관광 분야의 조사, 연구를 통해 정책개발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문화관광산업 육성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지역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방안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바쁘시고 번거로우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반드시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2. 9.

주 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 임 연 구: 김 면 문화예술공간연구실장  
조 사 담 당: 노수경 부연구위원 (02-2669-8473)

설문조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수집한 개인정보를 답례제공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자 합니다.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 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해당 설문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② 응답자의 정보는 답례제공(성명, 연락처)시 사용합니다.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① 선택항목: 답례제공을 위한 성명, 연락처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① 선택항목에 대한 개인정보는 답례제공 후 즉시 파기됩니다.

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①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②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답례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안내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하시면 아래에 체크 해 주십시오

선택항목 동의(제3자 제공) 성명, 연락처

## 0. 응답자 특성

SQ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SQ2.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20대 이하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⑥ 70대 이상

SQ3. 귀하께서 근무중이신 문화기반시설이 위치한 사도는 어디입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세종시 포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SQ3-1. 귀하께서 근무중이신 문화기반시설이 위치한 세부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의 동지역    ② 일반시의 동 지역                      ③ 읍/면지역

SQ4. 귀하께서는 어떠한 유형의 문화기반시설에 근무중이십니까?

- ① 도서관                      ② 박물관                      ③ 미술관                      ④ 문예회관  
 ⑤ 지방문화원                      ⑥ 문화의집                      ⑦ 생활문화센터                      ⑧ 기타 (                      )

SQ5. 귀하의 근무 형태(직군)는 어떻습니까?

- ① 공무원(일반 행정직)                      ② 전문직 공무원(사서, 학예사 등)  
 ③ 계약직                                          ④ 위탁기관직원                      ⑤ 기타 (                      )

## I 문화기반시설 관련 현황조사

1. 귀하께서 근무하시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문화기반시설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	--	-----	--

- ① 도서관                      ② 박물관                      ③ 미술관                      ④ 문화예술기관                      ⑤ 지방문화원  
 ⑥ 문화의 집                      ⑦ 생활문화센터                      ⑧ 기타(\_\_\_\_\_)

2. 귀하가 종사하는 문화기반시설을 방문하는 지역주민들의 범위는 어느 정도 입니까?

- ① 거주하는 마을                                      ② 거주하는 시군구 내                                      ③ 인접하는 시군구까지  
 ④ 원거리 시군구                                      ⑤ 기타 (\_\_\_\_\_)

3.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는 문화기반시설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교통편 이용 시)

- ① 10분 이내                                      ② 30분 이내                                      ③ 1시간 이내                                      ④ 2시간 이내  
 ⑤ 기타 (\_\_\_\_\_)

4. 문화기반시설에서 지역민들이 주로 참여를 선호하는 문화향유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관람감상형                      ② 경험, 체험형                      ③ 현장답사형  
 ④ 강의 교육형                      ⑤ 교류 참여형                      ⑥ 기타 (\_\_\_\_\_)
5. 귀하께서 근무하시는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6. 지역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문항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지역은 문화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지역의 문화기반시설은 시민들이 문화예술 관련 활동을 끌고루 누릴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지역의 문화기반시설에서 제공되는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준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지역 문화기반시설에서 활동하는 전문 인력들의 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지역의 문화기반시설 관련 활동을 위한 법과 제도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II 문화기반시설 관련 인식조사

7. 지역민들이 문화기반시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선택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1순위	2순위

- ① 프로그램의 흥미 있는 내용                      ② 강사선생님들의 유명도  
 ③ 참석이 편한 접근성                      ④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 시간  
 ⑤ 편의시설과 이용환경                      ⑥ 언론보도와 홍보  
 ⑦ 주위 의견 혹은 네티즌 의견                      ⑧ 교통이 쉬운 편의성  
 ⑨ 기타(                      )
8. 지역주민들이 문화기반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교통편이 불편해서                      ② 동행자가 없어서  
 ③ 참여하고 싶은 문화프로그램이 없어서                      ④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알지 못해서  
 ⑤ 의향은 있었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⑥ 주변 가까운 곳에 문화기반시설이 없어서

- ⑦ 비용이 발생해서  
⑧ 편의시설이 불편해서  
⑨ 기타( )

9.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화기반시설 간 지역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② 대도시-주변도시 간 격차    ③ 도시지역-농촌지역 간 격차  
④ 지역 내 시군구 격차    ⑤ 원도심-신도심 간 격차    ⑥ 기타 ( )

10. 귀하께서 근무하시는 지역에서 다른 문화기관 단체들과 네트워크 교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협력·교류가 없다      ② 협력·교류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③ 가끔 만나서 교류하고 있다    ④ 협력·교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⑤ 협력·교류가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11. 지역에 인접한 다른 시군구의 문화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연계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 III 향후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방향

13. 향후 문화기반시설 활성화를 위해 정책추진에서 중요성 정도를 평가해주시요. 각 항목에 대해 중요성이 높을수록 5점을, 낮을수록 1점을 선택해 주십시오.

항목		중요성 낮음 ←---- 중요도-----> 중요성 높음				
		1	2	3	4	5
프로그램	문화관련 프로그램 기획관련 교육 제공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프로그램 교육 강사 지원					
	프로그램 기획사례(모델링) 제공					
인프라	복합문화시설 확대					
	노후시설의 리모델링					
	운영인력 지원					
	운영인력 전문 교육					
	물적 지원(설비·장비) 지원					
	주민의 편리한 접근성(대중교통 체계 등)개선					
정보	시설과 행사에 대한 홍보 확대					
	온라인을 활용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					
예산	시설 관련 예산 확충					
법률	문화기반시설 관련 법률 제·개정					
민간	민간의 문화기반시설 운영 참여 확대					

14. 향후 문화기반시설 간 협력 증진과 관련하여 중요성 정도에 대해 평가해주시요. 각 항목에 대해 중요성이 높을수록 5점을, 낮을수록 1점을 선택해 주십시오.

항목		중요성 낮음 ←---- 중요도----> 중요성 높음				
		1	2	3	4	5
인식	기관 간 협력증진 신뢰 및 파트너십 형성					
네트 워크	국공립 기관들의 협업체계 구축					
	광역 내 지역단위 협력체계 구축					
	기초단위 문화기반시설 간 협력강화					
	관종별 기관들의 연계체계 강화					
프로 그램	기관 간 프로그램 활용 공동수행					
	프로그램 강사풀 공동 운영					
인프 라	인접지역 문화시설 공동이용					
	인력 교류 및 협력 지원					
	기관들 간 물적 교류 협력 장려					
	행정 사무 협업 분야 제도화					
정보	정보시스템 연계 활성화					
제도	협업촉진을 위한 관련 법적 기반 마련					

15.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집필내역

---

### 연구책임

김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제1장, 제4장, 제5장 연구총괄

### 공동연구

노수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제2장, 제3장, 제4장

정수희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제4장 제3절 일부

### 연구 자문

장세길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제4장 제3절 일부

### 연구 참여

이종화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석사: 제2장 제1절

## 지역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

---

발행인 김세원

발행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쇄일 2022년 12월 05일

발행일 2022년 12월 05일

인쇄인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

I S B N 978-89-6035-950-5 93300

DOI <https://doi.org/10.16937/kcti.rep.2022.e32>

이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

김면·노수경·정수희(2022), 지역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www.kcti.re.kr](http://www.kcti.re.kr)



아래의 DOI 또는 QR코드를 통해  
이 보고서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doi.org/10.16937/kcti.rep.2022.e32>

